

## 정치적 지지율 떨어질라... '대통령의 사람들' 칼바람

최순실 국정농단 후... 박근혜 리더십도 '친박' 시장·국회의원도 타격

인천 '친박(親朴근혜)'의 향후 행보가 관심거리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윤상현·이학재·민경욱 국회의원 등 인천에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즐비하다. 그래서인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불똥이 인천까지 튀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대로 곤두박질친 상태. 불똥은 친박을 넘어 '빠박(빠속까지 친박)'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후 재선을 노리는 유시장과 윤상현·이학재·민경욱 국회의원의 지지를 동반 추락을 걱정사 실화하는 분위기가.

유 시장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2005)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 본부장(2012), 대통령 시절 안전행정부 장관(2013~2014.3)을 거친 '원조 빠박'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권의 구원투수로 인천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상현(인천 남을)의원은 청와대 정부 특보(2015.2~10)를 지낸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사석에서 박 대통령을 '누남'이라 부른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유명하다. 친박계 실제 정치인인 그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까지 일으켰었다.

이학재(인천 서갑)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2012)으로 활동해 정권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2010년 한나라당 전 대표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12년 3월에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서구를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선거기간 중 3차례나 방문했다. 특히 올해 4·13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드물게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을 방문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경욱(인천 연수)의원은 KBS 9시 뉴스 앵커에서 청와대 대변인(2014.2~2015.10)으로 전격 발탁돼 '박 대통령의 입' 역할을 수행했다. 민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차은택 감독이 기획·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관련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완성하기 위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들의 앞날도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서 그렇다. 인천의 '빠박' 4인방이 '몰박(몰락한 친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30일 "유 시장을 비롯해 윤상현·이학재·민경욱 의원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선된 인물"이라며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 상실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내 친박계 정치인들 역시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경 기자 cho@kihoilbo.co.kr



김장철 앞두고 분주한 소래포구어시장 김장철을 앞두고 휴일인 30일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이 김장용 생새우와 새우젓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청와대, 우병우·문고리 3인방 전격 교체 민정수석 최재경·홍보수석 배성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비서실장을 비롯해 4명의 수석에 대한 사표 수리와 함께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의 후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완중 비서실장과 안중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부·우병우 민

정·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와 함께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정상



최재경 민정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황을 고려해 이 중 비서실장, 정책조정·정부·민정·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부수석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 문학산 정상 개방 1년 넘게... 인천시·남구 관리 불통

인천 문학산 정상이 '반쪽만 개방'됐다는 말이 나온다. 개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인천시와 남구 등 관련 기관 업무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30일 시와 남구에 따르면 현재 문학산 정상부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시 문화재과를 통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비롯한 문학산 등산로 개방 관련 민원은 남구가 도맡아 시피한다. 해당 구는 관련 민원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

남구는 문학산 정상부의 문학산성 보존·관리 업무와 인근 안전경비요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신 문학산 정상부 관련 행사와 지표·발굴조사에 대한 결정권, 보호구역 부지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은 없다. 문학산성의 경우 이전까지 조사 자료가 없어 정비·복원방안에 대한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남구는 지난해 문학산 정상이 개방된 시점부터 시에서 지원을 받아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지표조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끝낼 계획이다. 구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계약 산성처럼 단계적인 발굴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 문화재과가 국방부

와 협의를 하고 알려 주는 방식이라 구가 직접 민원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 부서 간에도 서로 문의하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전담 부서 구성 없이 문학산 개방이 이뤄지다 보니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모든 민원은 시 문화재과 문화재시설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구청으로 민원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공급적으로 문학산 전체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되고 문학산을 시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 社告

## 기호일보 디지털 뉴미디어 혁신합니다



■ 실시간 뉴스 상단 배치  
■ 매뉴얼 이동·검색 편리

■ 메인·섹션별 화상 첨부, 시각적 효과 높여  
■ 속도 개체 강화 기호 TV 동영상 서비스

■ 첫 화면 나열 편집 개선  
■ 뉴스 집중도 크게 향상

기호일보 디지털 플랫폼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ihoilbo.co.kr)와 모바일 홈페이지(http://m.kihoilbo.co.kr)·앱 등 인터넷 환경을 개편해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독자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9월부터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는 메인 기사와 섹션 기사에 시원한 화상을 첨부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고, 실시간 속보를 강화했습니다. 종이신문의 새 콘텐츠로 급부상 중인 동영상 서비스로 '기호TV'를 신설해 기획시리즈나 취재 현장의 살아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라는 최근 디지털 트렌드에 걸맞게 모바일 홈페이지(m.kihoilbo.co.kr)·앱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은 뉴스 게

재 건수를 줄이는 대신 실시간 뉴스를 상단에 배치하고, 화상을 활용한 시원한 편집으로 좁은 모바일 공간에서 독자의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했습니다. 화면 좌우 움직임(swiping) 시스템을 채택해 매뉴얼 이동은 물론 필요한 정보의 검색도 편리하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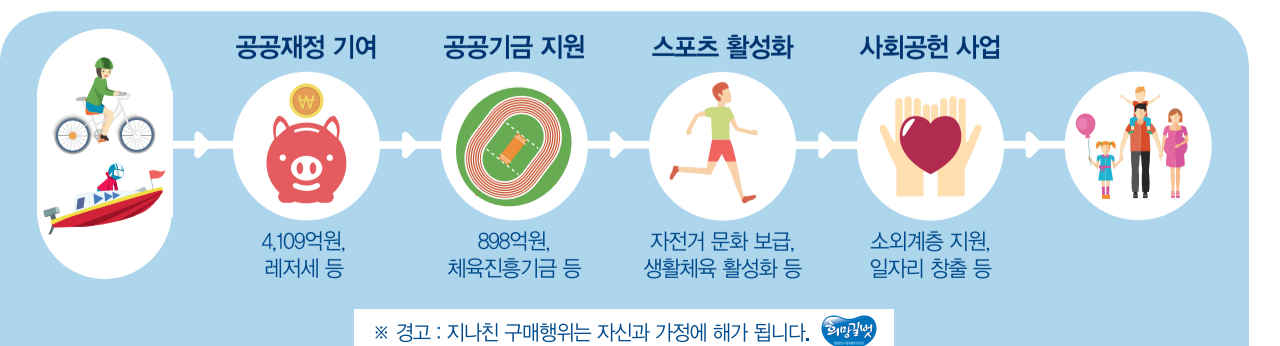
모바일 앱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 첫 화면의 뺄뺄한 기사 나열식 편집을 지양하고, 사진 등을 배치해 시각적 효과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만 구동됐던 '기사 연속 보기'와 'PC 화면', '속보 알람' 기능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기호일보 뉴스 앱은 본보 홈페이지 '손 안에 스마트 뉴스'나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기호일보'를 검색하면 편하게 내려받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호일보사



## 희망이 달린다 나눔이 커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경정**을 통해  
2015년 **5,007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 인천의 정신 사선에 담았다더니 '메가박스 브랜드'와 판박이

강화군 관광활성 공론의 장 시민·전문가 모여 확대회의

### 새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 표절 의혹 또 일어 박해란 담당관 "시민 이해 돕기 위해 예시 만든 것" 해명

인천시 새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을 웨이즈 인천)'을 두고 표절과 제탕<본보 10월 19일자 1면 보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주)의 기업 브랜드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시는 지난 13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 도시브랜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 담당자는 '인천(INCHEON)'이라는 도시명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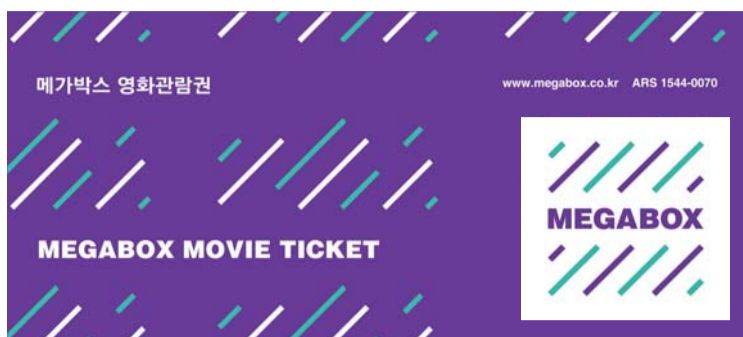
미래를 이어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브랜드에 녹이기 위해 길을 상징화한 '다리(N)'를 도시명과 접목시켰고, 인천의 대표 컬러인 하늘과 바다색을 입혔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리를 표현한 알파벳 'N'의 사선(\\)을 브랜드 주변에 나열해 역동적인 인천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과 가방 등에 적용할 수 있다는 활용 예<사선 왼쪽>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메가박스가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및 브랜드 응용 상품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13일 새 도시브랜드를 공표하면서 활용예시로 제시한 브랜드 응용상품(왼쪽)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우)가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영화티켓



메가박스는 'MEGABOX'라는 브랜드 이름 주변에 보라와 민트색의 사선을 배치해 안정감과 역동성을 표현했다. 메가박스는 티켓과 멤버십 카드 등 이 같은 브랜드를 응용한 상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해란 인천시 브랜드 담당관(전 SK텔레콤 상무)은 "인천시 도시브랜드를 발표한 뒤 메가박스 브랜드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발표 당시 제시한 응용 상품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 도시브랜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 안팎에서는 졸속 추진의 결과로,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한 시각디자인 전문가는 "도시브랜드 발표 이후 기업과 타 지자

체 것을 모방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인천시 브랜드 자체가 지닌 변별력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와 철저한 점검 없이 빠른 시간 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새 도시브랜드를 둘러싸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 브랜드가 인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 또 300만 도시 인천을 표현하는 브랜드로 손색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상처뿐인 브랜드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화군에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차 관광진흥 확대회의'가 지난 28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천의 8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시민·전문가·공무원·공공기관 등의 연합회의로 진행됐다.

최혜경 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성숙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임정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사, 안영수 시의원, 김라기 강화고려사재단 사무국장, 윤재상 강화군의회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강화의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는 강화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강화군 현지에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화군민들도 함께했다.

시 관계자는 "정례화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통해 시와 군·구, 그리고 관광공사가 협력적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창조적인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인천만의 고유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 도시철 2호선 개통 90일째 누적 수송인원 1천만 돌파

### 검단사거리역, 하루 평균 8035명 이용 '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누적 수송인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3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7월 30일 개통 이후 90일째인 지난 27일 현재 누적 수송인원은 1천2만5천38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누적 승객 1천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8량으로 운행되는 인천 1호선이 과거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데 75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개통 이후 1일 최고 수송인원은 지난 21일 14만4천1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일에는 평균 12만2천832명, 휴일에는 8만9천623명을 각각 기록 중이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2만6천430명으로 가장 많다.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검단사거리역으로 일평균



8천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구청역과 주안역, 모래내사거리역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역세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2호선 양쪽 끝의 운연역과 검단유류역은 각각 일평균 613명과 1천384명 수준으로 이용객이 적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개통 90일 만에 누적 수송인원 1천만 명 돌파 기록은 개통 초기 잦은 장애와 사고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이용해 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 인천경제구역관 한중 FTA 시범지구에 '등지'

### 중 웨이하이 시에 내일 개관

한중 FTA 경제협력시범지구인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관이 11월 1일 문을 연다.

인천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새로운 교두보가 될 IFEZ관 개관식에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참석한다고 30일 전했다.

중국 웨이하이시 환취구 위고광장에 위치한 IFEZ관은 총면적 1천448㎡ 규모로 상설전시관과 홍보관, 수출 및 투자상담실 등을 갖췄다. 이미 인천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Oul)과 지역 브랜드식품 '해노랑' 등 58개 업체가 전시관 사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FTA 체결 시 '지방경제협력사업'으로 인천과 웨이하이를 시범지구로 정하고 서로 대표처 또는 사무소 설립과 공무원 파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IFEZ관은 이 같은 합의를 근거로 한 첫 성과물이다.

IFEZ관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의 상품 전시와 무역 상담을 지원하고, 중국 자

본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벌인다. 특히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중국 기업에 외부 위탁하려는 국내 기업에게 우수 공급자를 연결해 주고, 중국 생산자에게는 국내 수요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웨이하이시에는 국내 기업에서 7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IFEZ관 개관으로 수출 전략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간소

다.

시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인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웨이하이시에 IFEZ관이 문을 열게 돼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근태 기자 jus216@khihoilbo.co.kr

## 시티투어, 1년간 부담없이 즐긴다

### 이용객 1만 명 돌파 기념 연간 자유이용권 1만 원에

인천관광공사가 1만 원으로 1년간 인천 시티투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판매에 나선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6월부터 운영한 시티투어 순환코스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자유이용권을 한 번 구입하면 구입일로부터 내년 10월까지

지송도·월미·개항장 코스의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이벤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인천 시티투어 자유이용권은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정 판매한다. 인천역 관광안내소와 송도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인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유이용권을 소지하면 11월 중 시행 예정인 인천 시티투어 제휴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인천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에게는 경제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 시티투어가 순환형으로 개편돼 새로워진 만큼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적이고 편리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많은 분들이 인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티투어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시티투어 안내 전화(☎032-772-4000) 또는 홈페이지, 인천의 각 관광안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티투어는 지난 4일부터 '300만 인천시대 맞이' 이벤트와 '평일 1+1' 이벤트를 함께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850명이 참여하는 등 시티투어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 위기 어린이 돕기 G타워 희망오르기 대회

2016. 11. 19 (토) 오후 1시 30분 송도 G타워 로비

**목적**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 (의료, 교육비 등 모금)

**내용**

- 계단오르기 대회 기록측정, 이색복장, 일반참가
- 이색이벤트 어드벤처 VR체험, 영화OST 연주회, 심폐소생술 무료교육 등
- TBN인천교통방송 공개방송 울랄라세션 공연, 차어리딩, 참가자 인터뷰 등

**참가자 혜택**

- 대회기념품
- 봉사활동 확인서(4시간/1365등록)

**참가신청**

- 참가비: 정기후원 월1만원 이상
- 온라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www.redcross.or.kr/incheon](http://www.redcross.or.kr/incheon)

주최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후원 | 기호일보 인천광역시지사 SAMSUNG BIOLOGICS SK 인천적십자회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032-810-1315~8

김홍기의 기호만평

새입참마속

제갈량이 원적을 위하여 자신이 아끼는 마속을 팔았다.

이 동색영

상현의 비전

# “행정공백 없도록 집행부와 공조 힘쓸 것”

### 윤재균 하남시의회 의장, 시장 직위 상실 후속조치 발표 “패션문화복합도시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없게 이행” 약속

“하남시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 공백을 두고 집행부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윤재균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의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현직 시장이 재임 중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하게 되는 하남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 3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대시민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해 왔으나 결국 상고심까지 오게 돼 하남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서 시장 공백이 하남 발전의 공백으

로 남았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시로 승격된 지 27년이 지난 지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시 전역에서 신도시급 택지 개발과 자족도시의 기반이 될 현안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다”며 “하남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개월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남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주요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종수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부에서 간과하는 부분은



하남시의회와 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향후 시장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없는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감시·감독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의회가 주체가 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스타필드 하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이 될 (가칭)하남 패션문화복합도시 개발사업과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의 남은 절차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오를 새롭게 다져 시장도 의장도 아닌 시민만을 위한 하남시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하남 발전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다 시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재 기자 hj@khihoilbo.co.kr

## 광명동굴 국제판타지페스티벌 폐막

### 판타지 콘텐츠산업 키워갈 영화 ~ 디자인 인재 찾았다

판타지 콘텐츠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2016 광명동굴 국제판타지페스티벌’이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8일 폐막됐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인 뉴질랜드 웨타웍스컴퍼니가 후원한 올해 국제판타지페스티벌은 ‘판타지 전문 영화제’가 새롭게 도입돼 ‘반지의 제왕’ 확장판 세 편을 비롯해 세계적인 판타지 영화 7편이 라스코전 시관에서, 판타지 단편영화 본선 진출작들이 동굴예술의 전당에서 각각 상영됐다.

영화 상영 후에는 판타지 콘텐츠의 다양한 모습을 분야 전문가들이 7개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판타지’ 순서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국제 판타지 공모전’은 판타지 콘셉트디자인 분야에 187점, 단편영화 분야에 70편이 각각 제출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판타지 콘셉트디자인 부문에서 국내 최우수상은 ‘서울 야시장’(김수진)과 ‘Deny!’(박현호)가 차지했으며, 해외 최우수상은 ‘Seoul Station’(왕 해닝)과 ‘Defiance’(조우신)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개마고원기지’(허대윤), ‘몬스터’(김정

현), ‘숲의 요정’(민보현), ‘위험하지만 달콤한 열매’(조희제) 등 4편이 당선됐다.

판타지 단편영화 부문에서는 ‘종말, 남자의 피아노 연주곡’(서준범)이 제작지원 시나리오에 선정되고, ‘할머니와 돼지머리’(안주영)가 단편극영화 최우수상에 뽑혔다.

단편극영화 ‘윈드폴 월드’(차상훈), ‘죽부인의 뜨거운 밤’(이승주)은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판타지 공모전 콘셉트디자인 부문 국내 최우수상을 받은 2명은 광명시로부터 창작공료와 체재비를 지원받아 뉴질랜드 웨타웍스컴퍼니에서 한 달간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특권을 받게 된다.

또 공모전 본선 진출작 및 특별작품 100여 점은 광명동굴 판타지웨타갤러리에서 3개월간 관광객에게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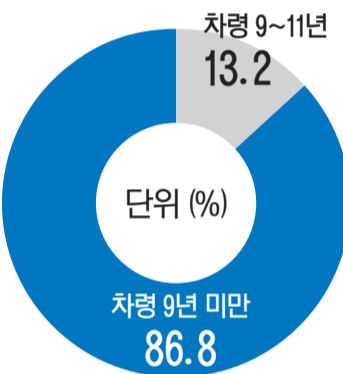
양기대 시장은 시상식에서 “광명동굴 국제판타지페스티벌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판타지와 관련해 가장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웨타웍스컴퍼니와 손잡고 한국의 판타지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호 기자 yhkim@khihoilbo.co.kr

## 수명 다된 버스 1665대 도내 질주

### 도내 운행차량 조사 결과 9년 넘은 비율 13.2% 달해 일반버스 45% 5년 ‘훨씬’

### 도내 버스 운행 연한 현황



경기도내 운행되는 버스 10대 가운데 1.3대는 차령이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중환(파주 1)경기도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 도내 운행 중인 버스는 1만2천611대로, 차령이 9~11년 된 노후 버스는 전체의 13.2%인 1천665대로 집계됐다. 차령이 5년 이상 된 버스는 4천936대(47%)에 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의 운행 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폐차해야 한다.

도내 버스 가운데 차령이 9년을 넘어 11년 돼 폐차 대상인 것만 40대로 0.3%나 됐다.

버스 유형별로는 시내버스 가운데

직행좌석 광역버스가 차령 5년 이내 51.3%, 5년 이상 48.7%이었다. 좌석버스는 5년 이내 53.5%, 5년 이상 46.5%였고 일반버스는 5년 이내 54.2%, 5년 이상 45.8%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안산시의회 전원 찬성·의결

안산시의회가 지난 28일 신안산선 1단계 사업 구간 중 안산 성포역과 시흥 목감역 사이에 중간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승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 설치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 의결했다.<사진>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신안산선 1단계 사업구간 내에 추진할 정차역이 총 15개로 계획돼 있으나 성포역과 목감역 간 거리가 약 6.4km에 이른다”며 “이는 도심 구간이긴 하나 시흥역에서 도림사거리역 구간 0.8km에 비해 8배가 되는 거리”

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포역과 목감역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양상·양하동, 장상·장하동, 부곡동, 수암동)은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환경이 낙후돼 해당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철도의 정차역은 이용수요를 고려한 경제성과 편리성 증진 및 지역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개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안산시의회의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구간 목감~성포역 사이 중간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 포천시, 지방채 100억 원 조기상환 쾌거

포천시는 내년부터 5년간 20억 원씩 갚아야 할 지방채 100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예산(3회 추경 기준 6천874억 원) 대비 부채비율은 5.6%에서 3.5%로 낮아져 재정건정성이 향상됐다.

시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현재 243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5년간 지급해야 할 이자 17억5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돼 예산도 절감했다.

시는 내년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

행을 억제하는 한편 재정사업평가, 기본경비 점검 등을 통해 재정건정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장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며 “충실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 부채 없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 인생 2막!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유)와이즈에너지월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소득! 노후를 준비하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근거한 태양광 RPS발전사업은 건물 위, 대지에 자신에 자금규모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소에 판매하는 안정된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 해결됩니다.

-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절약
- 신축주택의 태양광설치로 가치상승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공사 · 수요자원등록 전문

태양광발전사업 문의 ☎1566-1336











# 감악산 노점운영 '밤그릇 싸움' 파주시 오락가락 대처에 혼란

시, 지역 상의 없이 상인단체 허용... 외부서도 몰려 주민 불만 민원 계속되자 "철수"... 초반 업체 선정 책임 묻자 떠남기기

파주시가 일부 상인단체에 등산로 입구 불법 노점을 허용했다가 인근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자 모두 철거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감악산 '운계출렁다리'를 완공해 지난달 22일부터 일반에 개방했다. 이 다리는 길이 150m 규모로 산악 현수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시 공원녹지과는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곳의 상인단체가 등산

로 입구에서 불법으로 노점 운영을 하도록 허용했다.

이 중 한 곳은 적성면 마지리와 구읍리 상인들의 친목 모임인 '적성면 상가변영회'이고, 나머지 한 곳은 2011년 설마전 물난리로 이주했던 상인들이 만든 '상가협의회'다.

상황이 이렇자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인근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앞다퉈 노점을 열겠다고 몰려들었다. 일부 외부

상인도 이미 노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적폭력배까지 발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다른 지역 상인까지도 이곳에 노점을 설치해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업이 성행하자 노점을 열지 못하고 있던 등산로 입구마을 설마리 주민들은 파주시와 적성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민원을 제기했다.

신영일 설마리 이장은 "쓰레기 문제와 도로 정체 등 출렁다리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설마리 주민인데, 상인단체에



28일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등산로 입구에서 파주시가 영업을 허락해준 노점과 외부 상인이 차린 노점들이 뒤엉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노점을 하게 해 주면서 주민들에겐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노점 영업을 하게 해 주려면 1순위는 마을 주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원칙 없는 불법 영업 지원으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시는 부랴부랴 모든 노점을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노점 2곳을 누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한 시와 적성면이 서로 발뺌을 했다.

이수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아무에게나 노점 영업을 하도록 맡길 수 없어서 그 지역 책임자인 적성면장과 의논 후 지역의 대표 상인단체들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명분이 없어 다 내보낼 예정

이며, 조적폭력배가 운영하는 노점도 2~3일 내로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법석 적성면장은 "등산로를 조성·관리하고 관련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모두 다 공원녹지과의 책임이며, 면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ghoilbo.co.kr

## 동네방네

### 남양주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

남양주경찰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12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부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외부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제 진접리 장현 민속5일장터 내 공용화장실은 평일 100여 명이 사용하지만, 장날엔 이용객이 300여명으로 늘어나 범죄 발생률이 높아져 비상벨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안심비상벨 설치를 통해 여성들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조환재 기자 chj@kghoilbo.co.kr

### 육군 5군단 포천·가평서 호국훈련

육군 5군단은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포천과 가평,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2016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적 침투 및 도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단의 전 기동 작전 요소가 참가해 진행된다.

특히 적의 지상 및 공중침투, 중요 시설 방호 등 다양한 훈련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김문수 운동과 탐색격멸작전, 화기 및 장비 기동 등 실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훈련기간 중 발생하는 불면 및 피해 사항은 5군단 감찰부 전화(☎031-534-6689)로 신고하면 된다.

포천=박덕종 기자 pdj3015@kghoilbo.co.kr

### 동두천시31회 소요단풍제 성료

동두천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제31회 소요단풍제'를 개최했다.

소요단풍제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문화원과 동두천예술교의 주관으로 기획돼 각종 문화예술 단체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29일에는 동두천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한 요석공주 선발대회와 어린이 어류소장군 선발대회,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30일은 전통문화 예술공연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송서율장, 국악협회의 우리소리 한마당,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동두천시의 문화예술을 선보였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ghoilbo.co.kr

# 포천 외북천 오염물 배출 감시 맞손

## 시, 환경단체 등 협의체 구성 사업장별 자체 점검 등 도모

포천시가 오는 11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회(가칭·이하 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외북천 주변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공장), 가축사육농가, 가족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53개소의 대표자를 비롯한 환경단체(새한탄강지킴이동본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수질 개선 필요성 인식 및 관심도 제고, 사업장별 자체 점검 및 상호 교차 점검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요령 공유, 하천 정화활동,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영평천의 수질이 지속적

으로 나빠지는 원인이 지류인 외북천의 수질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부터 외북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외북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19개 시설을 적발했으며, 이중 15개 시설에는 과태료(970만원) 부과, 4개 시설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포천=박덕종 기자 pdj3015@kghoilbo.co.kr

# 구리지역 결혼식 허례허식 완전 타파

## 시 예비부부 혼례교육 청첩장 만들기 등 호응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도와 혼인율을 높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비용은 반, 가치는 두배! 행복한 우리 결혼 제작용'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예비부부들에게 색다른 추억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두 사람만의 가치 있고 실속 있는 결혼식을 만들 수 있도록 ▶행복한 결혼을 위한 상호작용 교육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 기획 ▶가치 있는 우리만의 청첩장 ▶셀프 부케와 부도네에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 과정을 막막하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느꼈는데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걸 알아가고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성은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기존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결혼식을 꿈꾸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hyun@kghoilbo.co.kr

교육에 참여한 한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 과정을 막막하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느꼈는데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걸 알아가고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성은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기존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결혼식을 꿈꾸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hyun@kghoilbo.co.kr

## 온열기로 어르신 몸 따뜻하게 가평군, 162개 경로당에 지원

가평군이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고, 각종 노인성질환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의료용 온열기를 관내 모든 경로당에 지원한다.

〈사진〉  
군은 관내 162개소 경로당에 총 179개의 의료용 온열기를 오는 11월 7일까지 설치기로 했다.

경로당별 1대씩 지원하게 되며, 이용 노인이 많은 14개 경로당에는 1대씩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총 3억5천 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원된 온열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형 온열기

배와 무릎, 다리 등에 사용해 각종 노인성질환, 관절통, 복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약물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가평=염근성 기자 gsuim@kghoilbo.co.kr

# 양평 갈산공원에 푸드트럭 뜬다

## 내일부터 본격 영업 스테이크 등 판매

양평군은 11월 1일부터 양평 갈산근린공원에서 첫 푸드트럭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푸드트럭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시민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푸드트럭의 정식 명칭은 '곰탕이 로컬푸드'로, 영업 장소는 갈산근린공원 내 탁구장 옆 구역에 위치한다.

주요 메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스테이크·바비큐 등 겨울철 찬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북엇국 등의 따뜻한 음식 위주로 구성됐다.

곰탕이 로컬푸드 신승희 대표는 "지역 생활체육의 메카인 갈산

근린공원에서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맛과 서비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갈산근린공원 외에도 용문면사무소와 용문생활체육공원, 양평읍사무소 등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ghoilbo.co.kr

근린공원에서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맛과 서비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갈산근린공원 외에도 용문면사무소와 용문생활체육공원, 양평읍사무소 등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ghoilbo.co.kr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860 위증

피고인  
이승춘

위 피고인은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6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임정업

---

www.taxsim.co.kr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빠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장대리·세무조정·세무상담  
벤처기업 법인전환·조세분류·경영자문

세무사 심광홍 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7-1 기원빌딩 3층  
TEL.032)424-1311 FAX.032)424-1310

**왕조바다마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왕조바다마을은 항상 위생적이고 신선한 활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계절의 맛! 계절음식 전문점  
활어·선어·산낙지 등 바다의 모든 것

분 : 주꾸미, 갑오징어, 송어 등  
어름 : 민어회·탕, 방어,뱅뱅이 등  
가을 : 전어, 낙지, 도루묵 등  
겨울 : 광어, 우럭, 도미, 농어  
새꼬시, 방어 등 활어 일철  
각종 : 생선조림, 매운탕 등

인하대병원  
현대(사)  
손도  
한전

공갈비  
진성토끼  
용원5동사무소

나비모텔  
왕조바다마을

왕조바다마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원5동 628-19 TEL.(032)884-4415

양평군 공고 제2016-1078호

**신복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신복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양 평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신복천 하천기본계획(변경)  
 ○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원  
 ○ 사업규모 : 하천기본계획 4.16km  
 ○ 시행자 : 양평군수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10. 25 ~ 2016. 11. 18  
 ○ 공람장소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양평군 옥천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 11. 3(목) 14:00 옥천면 신복2리마을회관

4. 주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 안전총괄과(031-770-2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프리즘

이상직

인천재능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

비선실세와 우주굴기

지난주는 온 나라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로 참 시끄러웠다. 비선실세(秘線實勢)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속적인 소문들이 마침내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비선’이란 물래 어떤 인물 혹은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 또는 그런 관계이며, 비선실세란 실체를 숨기고 국가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실제 세력이나 그것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혹은 정실적 지주로 알려진 최태민(목사)씨의 딸인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비선세력들이 국가 권력의 주요 조직과 기관에 퍼져 독

버섯처럼 사리사욕을 채워 온 사실이 일부 밝혀졌다.

국가 권력의 중심부인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삼성 SK 롯데 등 대표적인 대기업,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명문대학 등 나라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이들의 손에 놀아난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다.

몸이 불편해 당분간 귀국이 어렵거나 연락 두절 중인 당사자들이 지난 주말 갑자기 모두 자진 입국해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정부 출범 후 정치적 평향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이든

특검이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바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비선실세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낱알이 공개해온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다.

한편 봉건시대에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이웃 나라 중국은 우주굴기(굴기란 산 따위가 불속 솟거나 무언가 크게 발전함을 의미하는 말로, 우주굴기란 우주항공 분야에 우뚝 서 미국과 러

아를 추월하겠다는 중국의 포부를 의미)를 향한 또 한 번의 위대한 업적으로 국민들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중국은 지난 17일 일곱 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본 중국인들은 환호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축전을 보냈다. 19일 선저우 11호는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2호와 마침내 도킹에 성공했고 우주인 2명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경례하며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표시했다. 중국이 우주공간에서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이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우주개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우주개발이 갖는 정치·경제·군사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잖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고, 마침내 1993년 우주개발을 전담할 국가우주국을 설립했다. 2003년에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한 후발주자로 최근 들어 가속도를 내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이번 도킹 성공으로 중국 국민들은 텐궁과 선저우의 앞글자를 따 하늘(天)과 신(神)의 조합이 이뤄졌음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2022년 완성 예정인 유인우주정거장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우주굴기를 향한 큰 걸음에 더욱 찬사를 보내고 있다. 언제까지 이웃집의 잔치를 마냥 부러워해야만 하나!

시해안

반성

최근 나라를 뒤덮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고 있노라니 올해 10년차 기자로서 내 자신이 부끄럽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치열한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같은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나 자신이 내태해진 게 아닌가라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루의 일정한 보편 아침에 출근 후 마감을 위해 사무실에 복귀하기 전까지 바쁘게 출입처나 취재현장을 다니며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송고하면

어느 새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다. 좀 더 고민했다면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짝은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수습시킬 스마트폰(수습기자들이 경찰서를 돌면서 사건을 취재하는 일)을 돌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줄었다.

왜 줄었을까. 내 생활이 느슨해졌다고 느낄 때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의 평전을 읽으면서 자극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요새 책도 안 잡힌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최순실 게이트를 놓고 언론사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단독이나 특종기사를 멀쩡잡지

떨어진 지역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 부끄러움이 커졌다.

비록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종 기사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좋은 이슈를 발굴해 이를 기사로 쓰는 성실한 언론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가 지나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나름의 안테나도 돌려보고 기획기사도 쓰고 있다.

한동안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최순실 게이트가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와 별도로 나 역시도 지역사회의 밑받침을 충분한 가치를 지닌 지역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다시 사명감을 갖고 취재에 임해야겠다는 결심이다.

<박종대 기자>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칼럼



김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장

예전과 다르게 먹고 살기가 나아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가친척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나가고 있다. 생활 여건이 썩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 미래에 꿈을 심어주고 좀 더 커다란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처갓집 조카뻘 되는 학생이 중학교 때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이젠 그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하면서 가끔 고국에 둘러보고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국에 들어와 살 생각을 접은 것 같아 아까운 인재가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병역 문제에 서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애국심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다.

같은 젊은이는 아는데 나이드는 우리만 모르는 것 같다.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가 살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회에서 살면서, 잘하는 젊은이가 계속 잘할 수 있게 사회가 계속 도와주기 때문이며, 특히 학교 교육 현상이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과 특히 일부 교육 지도자는 교육을 그 자체로 바

라보지 않고 이념과 코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일부 지방교육 단체장(교육감)은 교육현장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중요성과 적개심을 덮어 씌우고 있다. 그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바라보는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쩌면 인천 송도신도시에 전방 좋은 값비싼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커다란 좋은 집 사지 말라고 떠들며 강화지역을 비롯해 가까운 경기도 주변지역에는 말이 좋아 주말농장이라면서 가옥 달린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녀는 쉬쉬하며 미국이나 먼 영국, 아일랜드에 많은 돈을 들여 여학 연수를 시키면서, 한참 공부할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공부나 전부가 아니라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로 모아 놓고 학교 구성원 다수가 만족감을 준다며,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강제로 시행하려는 공급자 중심 각종 교육 정책을 홍보한다. 교육현장에는 교육 자치로 각종 교육정책이 들어오면서 선거 표를 의식한 정책이 학생보다는 교육 여론을 주도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보다 선생님의 근무여건에 초점이 주어진 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시각에서 선생님이 근무하기 편하고 학생 지

도에서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늘 학생의 인권·인격을 설명하며 학생의 건강 그리고 학생의 행복 추구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부모도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와 교실 현장은 첨단화됐지만 정작 학생들이 교과시간을 넘어서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 교실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갖가지 책임문제를 떠안을 수 없기에 학부모가 직장에 출근 후 등교하도록 하는 9시 등교 그리고 각종 방과 후 활동 등을 보이지 않게 힘들게 하고 일찍 교문을 닫아야 하는 교육현장을 등교시간 정상화 그리고 방과후수업, 보충·자율학습 선택권 확대 등 공교육을 떠나 사교육 현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발, 복장 자율화가 학생들 개성의 다양화와 인권으로 포장해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지도도 포기하도록 해, 학생으로서 신분을 벗어난 각종 탈선과 성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선생님에게는 서류로 책임을 벗어나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책임면피성 상부 보고, 공문서 과다업무로 학생 학습지도도 위한 선생님의 수업혁신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

매월 전 만난 교장선생님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업무지침 지도로 학교장으로서의 재량적 학생지도 자율권은 하나도 없다며 푸념했다. 이제라도 교육감 중심의 공급자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로 이어지는 상향식 수요 중심교육으로 개선포야 한다.

기호지방(畿湖地方)이란?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일컫는 지방명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충청남북, 이북의 충청도 북부 지역, 멸약산맥 이남의 황해도 남부지역이 포함된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등록번호 인천가00001 /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인지동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호영
인천본사 :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선빌딩 9층 032-761-0001
경기북부본사 :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11층 1102호 031-872-2990

경인방송 FM 90.7MHz Spirit of Inchoen
경인방송! 인천을 듣습니다.
인천의 역사, 경인방송 FM 90.7MHz
행복의 소리, 경인방송 FM 90.7MHz
경기의 동반자, 경인방송 FM 90.7MHz
시민의 안전지킴이, 경인방송 FM 90.7MHz



원헌린 칼럼

에서 멈출 순 없지 아니한가!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망국(亡國) 뒤에는 반드시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다.

“옛날의 시장(市場)이란 자기에게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던 물물교환의 장소였다. 유사(有司)들은 다만 이것을 다스리는 일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못한 사나이가 있어 남을 물리치고 자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우뚝 높이 솟은 언덕(龜)을 찾아 올라가 여기저기를 둘러보아 시장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천박하게 여겼다. 유사(有司)도 그에게 세금을 물렸다. 장사꾼에게 세금을 물리게 된 것은 이 천박한 사나이로부터 시작됐다(古之爲市者以其所有易其所無者有司者治之耳)니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 是 人皆以爲賤故 從而征之 商人 自此賤丈夫始矣니라.”

“농단(龜斷)의 출처 <맹자(孟子)>에 나오는 이야기다. 출전(出典)에서 보이는 것처럼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망국(亡國) 뒤에는 반드시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다. 진시황(秦始皇)이 죽음을 앞두고 “돌아와 나의 상사(喪事)에 참석하고 함양에 모여 상례를 거행하고 안장하라”는 내용의 옥새가 찍힌 친서를 공자(公子) 부소(扶蘇)에게 보내게 했다. 하지만 조서는 세서(廢書)의 업무를 겸임하는 중거부령(中車府令) 환관 조고(趙高)의 수중으로 들어가 사자에게 건네지기도 전에 시황은 세상을 떠났다.

황제의 죽음을 아는 자는 승상 이사(李斯), 공자 호혜(胡亥)와 조고, 환관 5~6명뿐이었다. 이들은 음모해 조서의 내용을 바꿔 호혜를 태자로 세웠다. 호혜가 부황의 상을 치른 후 제위에 올라 2세 황제가 됐다. 농단을 부러 정권을 장악한 조고는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군신(群臣)들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음에 두려운 나머지 시해해보려고 사슴 한 마리를 끌고 가 2세에게 바치며 말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2세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더니” 2세가 측근의 신하에게 묻자,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조고에게 아무

하여 말이라고 대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슴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후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자들을 은밀히 법망에 걸여 처벌했다.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지육위마(指鹿爲馬)’야기다.

최순실이라는 한 필부(匹婦)가 부린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결단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정은 붕괴되고 국민들은 실망을 들어 사자에게 건네지기도 전에 시황은 세상을 떠났다.

황제의 죽음을 아는 자는 승상 이사(李斯), 공자 호혜(胡亥)와 조고, 환관 5~6명뿐이었다. 이들은 음모해 조서의 내용을 바꿔 호혜를 태자로 세웠다. 호혜가 부황의 상을 치른 후 제위에 올라 2세 황제가 됐다. 농단을 부러 정권을 장악한 조고는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군신(群臣)들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음에 두려운 나머지 시해해보려고 사슴 한 마리를 끌고 가 2세에게 바치며 말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2세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더니” 2세가 측근의 신하에게 묻자,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조고에게 아무

들어다보면 볼수록 온통 황충(蝗蟲)의 무리들로 넘쳐나고 있는 정가

(政街). 자리에 걸맞지 않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국정을 농단, 막중 국사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는, 그 인사권자가 강을 건넜는데도 배를 버리지 못하고 구레(舊來)의 사술에 얽매어는 어리석음이 낡은 결과라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졸근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과 쇄신, 유신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부패만 키워왔다. 사회 어느 한 곳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곳이 없다.

공직자는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자각상심이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흠손질하여 다듬을 수 없다고 했다. 한시바빠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새살이 돌아나도록 해야 하겠다. 필자는 누차에 걸쳐 정치인을 향해 ‘사가(史家)를 의식하라’, ‘역사(歷史)가 굶어보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역사의 눈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해왔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후세 사가들이 오늘의 우리 역사를 여허히 기록하고 있을까 두렵기만 하다. 어떻게 이어내려온 우리 역사인가. 예서 끝낼 순 없지 아니한가!



사치플라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

아이원에 대한 정부정책 부족으로 10%, 그리고 기타 무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아이리브 맘 카페, 성추산 아이슈터 등 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또한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부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현재 경기도 평균인 4.9% 수준(610곳 중 30곳)이며, 전국 평균인 6.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15%), 성남시(8.9%) 등과 비교한다면 다소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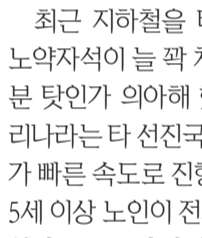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는 계획적 확충과 정책적 확충인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추진, 향후 5년 동안 30곳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을 현재의 두 배인 약 10%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적 확충방안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의무 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시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10곳을 직접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 다음 정책적 확충 방안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 20곳의 어린이집을 간접적으로 국공립화시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는 국공립 시설이 없는 부천시의 14개 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희망 수요를 파악한 후, 올해 중에 우선 몇 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확보해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해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해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은 비단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보육환경은 아이들의 개별화된 요구를 충족시켜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 건강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시의 국공립 어린이 집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공급이 적어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계획한 여러 방법들을 적용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등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중구

부천시 보육아동과장

본보 제6기 독자위 2차 회의  
기호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27일 오후 본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10월 한 달간의 지면 평가와 제언을 위한 자리로, 이국성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상범·강욱엽·권도국·김은영·신미송·최영호·황민규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본보 한창원 사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위원 9명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인지동 편집국장장은 “최근 본보 오피니언 필진을 새롭게 꾸려 지면을 통해 공지했다”며 “이번 새 필진은 날카롭고 예리한 글을 쓰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홈페이지도 개편했다”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독자와의 소통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에서 신미송 위원은 “최근 인천

‘인구 300만 돌파’ 단편적 접근 아쉬워 도시브랜드·CCTV 지적 기사 등 눈길

본보 제6기 독자위 2차 회의

시교육청 관리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전교조 출신으로 당선 당시 내비쳤던 청렴성과 너무 대비돼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인천 새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올웨이즈 인천)’, ‘Always Taebaek(올웨이즈 태백)’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 마치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봉건시대애나 나올 법한’이라는 주장과 연관돼 너무 한심했다”며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 하기에 이런 도시브랜드를 지을 때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 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잘 지적해 줬다”고 말했다.  
최영호 위원은 “최근 인천시가 300만 인구를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나를 개탄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건축 파트 공무원으로서 비전의 구체성이 부족한데 인구 증가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과 논현·삼산 등 5곳을 빼면 인천의 나머지 도시는 모두 원도심인 상황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을 인천시

송도·청라 등 5곳 빼면 모두 원도심 건축 분야 비전 구체성 부족한 상황  
역사 다룰 땐 전문가 조언 구했으면  
도표·그래픽 미흡... 외래어 자제를

로 이관하는 문제 등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개발도 좋지만 기존 건축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도시 안전에 대한 기획 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민규 위원은 “이번 달에는 CCTV의 저해상도 등 화질 상태의 지적과 교체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며 “CCTV 구매 등과 관련해 현재 낭비가 많은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기호일보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남구와 동구에서 구 명칭 변경은 물론 이로 인해 동구의 경우 도시국의 존치 여부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뉴스테이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 불



본보 독자위 6기 위원들이 지난 27일 2차 회의를 통해 10월 한 달간의 지면을 평가하고 있다.

안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영 위원은 “인천 인구 300만 돌파에 대한 기사에서 타이틀에 맞지 않게 단편적으로 내용을 다루어 결맞은 구체적 제안이나 인터뷰 등이 없었던 게 아쉬웠고, 경기도 이전 바리큐경연대회 제하의 기사는 다음 날이 행사인데 너무 촉박하게 나왔고, 그 밖의 행사 개최 관련 기사들이 행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행사장에 가는 방법 등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

적 문제와 시스템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좋았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부모의 선택 기회가 없다는 문제와 먹거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기사를 다뤄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도국 위원은 “6살 말 알매장, 생후 66일 된 영아의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 등을 볼 때 입양제도와 아동 인권 등 구조적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지 기호일보가 먼저 나서 짚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욱엽 위원은 “역사 관련 보도는 정

확한 보도와 임팩트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 특히 역사를 다룰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문상범 위원은 “최근 1번 스트레이트 기사와 연계된 해설기사가 독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표 및 그래픽 처리가 여전히 미흡하고, 나오더라도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사의 제목이 너무 길고 일반적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흔하지 않는 외래어 사용은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최유태 기자 cyt@kinfo.co.kr

사설

최순실 사태, 본질과 심각성 직시가 열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인적 쇄신책에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을 지 심히 걱정이다.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이 있었고 전국 곳곳 도시에서도 집회와 개회되는 등 그 조짐들이 심상치 않게 때문이다. 초유의 사태로 빚어진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태의 직간접 책임이 있는 박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태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를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국민께 보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허탈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박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파기하는데 따른 배신감에서다. 때로는 유행성이 없어 보일 만큼의 고집으로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불통의 비난을 자초했을 때

의혹투성이 K-컬처벨리 촘촘히 조사를

K-컬처벨리는 경기도 일산에 건립되는 한류복합테마파크다. 축구장 46개 면적에 한류를 테마로 콘서트파크, 공연장, 쇼핑몰, 숙박시설 등을 짓는 게 사업의 주요골자다. 그런데 이런 품격있는 문화사업의 의혹과 특혜 시비로 얼룩지며 그 정당성이 훼손되고, 추진 동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차은택 씨가 주도했고, 구술·수감·방송·특사로 이어진 이재현 회장의 CJ그룹이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등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청와대가 불속 발표하면서 가시화됐다. 정작 당사자인 경기도와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한다. 일각에선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한류월드 사업’을 간판만 바꿔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CJ E&M 컨소시엄이 공모 마감 1시간 전에 단독 응찰하며 주관사로 선정됐고, 올해 5월에 K-컬처벨리 용지 23만7천410㎡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천만 원에 50년간 대부하는 협약을 경기도와 맺게 된다.

모쪼록 따르던 ‘문화융성 실행보고서’라는 문건이 2014년 8월 차 씨에 의해 문체부에 제안서 형태로 제출됐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결정되고, 차 씨의 은사인 김충덕 교수가 신임 장관으로 부임한 때다. 차 씨가 문화계의 황태자, 비선 실세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이후 차 씨는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하며 서울의 문화창조 융합센터와 문화창조아카데미, 제주도의 융복합 상상공간창, 경기도의 K-컬처벨리 사업을 주도한다.

K-컬처벨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한 축을 고양시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2015년 2월 청와대가 불속 발표하면서 가시화됐다. 정작 당사자인 경기도와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한다. 일각에선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한류월드 사업’을 간판만 바꿔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CJ E&M 컨소시엄이 공모 마감 1시간 전에 단독 응찰하며 주관사로 선정됐고, 올해 5월에 K-컬처벨리 용지 23만7천410㎡를 공시지가(830억 원)의 1%인 8억3천만 원에 50년간 대부하는 협약을 경기도와 맺게 된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모절차의 하자 여부다. 시행사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지 가능성이 크다. 둘째, 대부료의 특혜 여부다.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업체가 아니면서 대부료를 낮추려고 조작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지 가능성이 있다. 셋째, 차 씨의 이권 개입 여부다. 앞에 명망 있는 간판을 내세우고는 뒤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준비했을 수 있다.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한 도의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라도 찾아내야 할 문제들이다. 최선을 다해 촘촘히 살펴볼기를 기대한다.

# 히어로가 된 천재의사 이야기 '극장가 접수'

마블 신작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 첫세만에 관객 200만 명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야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5일 만인 이날 오전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는 개봉 후 첫 주말인 29일 하루 동안 7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불러모으며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마블 코믹스가 원작인 이 영화는 불의

의 사고로 절망에 빠진 천재 신경외과 의사가 마법을 얻게 되면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기존의 마블 영화에 등장한 슈퍼 히어로를 뛰어넘는 강력한 캐릭터인데다, 2018년 개봉 예정인 '어벤저스:인피니티 워'에 합류할 새 멤버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지금까지 국내 개봉한 마블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은 1천50만 명을 동원한 '어벤저스: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이며 '어벤저스'(2012), '아이언맨3'(2013),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2016) 등도 500만 명 이상을 불러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한 장면.

토마스곡 새 앨범 내달 3일 발표  
전 수록곡 직접 작사·작곡·연주



싱어송라이터 토마스곡.

싱어송라이터 토마스곡(본명 정순웅·40)이 5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뮤직맘은 토마스곡이 11월 3일 0시 총 7곡이 담긴 정규 3집 '토마스곡'을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2011년 정규 2집 '저니(Journey)' 이후 선보이는 3집에서 프로듀싱은 물론 전곡의 작사·작곡·연주를 홀로 해냈다.  
핑크한 밴드 사운드의 첫 곡 '두 번째 인생'으로 반전을 주더니 어쿠스틱 팝 사운드의 '그래 안녕'과 묘한 어둠이 내려앉은 '어둠의 왕' 등 이어지는 곡으로는 자신의 색깔을 구체화했다.  
토마스곡은 1999년 밴드 마이엔트메리 1집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데뷔했다.

2001년 솔로 1집을 발표했던 그는 2011년 2집으로 본격적인 홀로 서기에 나서며, 당시 김동률이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해 화제가 됐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5:00 이옥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5:15 코리언 지오그래픽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5:00 MBC 뉴스 5:10 오늘 플러스 6: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봄날>	5:00 SBS 뉴스 5:10 SBS 특선 다크멘터리 6:00 모닝와이드 <-1-3부->	6:00 경인 Zoom 인 6:55 OBS 전역 인터뷰 7:05 TV주치의 무병장수 7:15 경인 토크 7:45 OBS 뉴스	5:00 EBS 생방송 영어 30 세계강연회 아틀라스 6:00 한국기행 20 세계테마기행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30 로보카 폴리 45 꼬마버스 타요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9:40 여유 만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본 좋은 날	8: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10 좋은 아침	8:10 독특한 연예 뉴스 8:45 로드 다크 <만남> 9:45 OBS 뉴스	8:00 당동명 유치원 45 부흥부흥! 부르미즈 9:00 광구대장 뽕뽕이 40 부모-위대한 엄마
1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10:40 지구촌 뉴스 11: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11: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시사하세영요?	10:05 드라마 극장<아내의 자격> 11:15 오! 이말이야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30 한국기행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	12:00 KBS 뉴스 1:00 대한민국 판소리축제	1:00 이웃집 찰스	12:00 MBC 정오 뉴스 12:20 통일전망대 1: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12:00 SBS 뉴스 12:50 꽃놀이패	12:05 연예매거진 1:05 자전적 식객	12:00 EBS 정오 뉴스 10 글로벌 가족정착기 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40 EBS 즐거운 수학 EBS MATH 55 시계마을 티키횭
2	2:00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2:00 KBS 뉴스타임 2:10 사람과 사람들 3: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30 TV 유치원	2:00 키즈 사이언스6 3:00 MBC 뉴스 3:10 특?속! 키즈 스킵 3:55 깨끼탐험대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0 3시, 뉴스 브리핑	2:05 꾸러기 TV 3:00 행복 부동산 연구소 3:45 원시 라이프 트라이버전	2:25 황선진 이 과학쇼 55 모피의 친구들 3:05 피터 래빗 20 아울링왕 귀여워 45 울돌! 슈퍼윈즈
4	4:00 4시 뉴스 집중 5:00 KBS 뉴스 5:30 동물의 세계	4:00 여유만만 5:00 VJ특공대	4: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도> 5:00 MBC 이브닝 뉴스	4:30 꾸러기 탐구생활 5: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5:30 SBS 뉴스퍼레이드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무자식 상팔자>	4:15 방귀대장 뽕뽕이 45 당동명 유치원 5:30 로보카 폴리 45 꼬마버스 타요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5 우리말 겨루기	6:00 KBS 뉴스타임 6:20 2TV 생방송보 7: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다시 시작해> 7:55 MBC 뉴스데스크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6:55 와이드 ASIA <배이징 제국의 수도> 7:45 OBS 뉴스 M	6: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열전
8	8:25 일일 연속극 <별난가족> 9:00 KBS 뉴스	8:30 글로벌 24 8:55 제보자들	8:55 일일 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도> 9:30 리얼스토리 논	8:00 SBS 8시 뉴스 8:55 생활의 달인	8:35 오늘의 월드 뉴스 9:05 독특한 연예 뉴스 9:40 TV주치의 무병장수 9:50 세기의 라이벌,지니어스	8:40 다크 오늘 5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다크프라임
10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사색	10: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11:10 MBC 스페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 2부>	10:00 월화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11:10 꽃놀이패	10:45 OBS 뉴스라인 11:05 OBS 역사대기획 <경기천년>	10:45 달라졌어요 11: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2	12:20 인강극장 스페셜 1:25 대식가들	12:35 비바K리그 1:25 사랑의 가족	12:10 MBC 뉴스 24 12:35 MLB 핫 토크 1:35 TV 예술무대	12:30 나이트 라인 1:00 SBS 골프 2:00 프로야구 중계서	12:05 허 끝으로 만나는 중국 1:00 행복 부동산 연구소 1:45 오! 이말이야	12:10 EBS 특별기획 통합 1:00 세계명작극장 <올림픽 시즌2 4부>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영화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10 아내가 바람을 핑니다 14:30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를 22:50 비정상회담	◇ KBS드라마 08:25 공화 가는 길 13:00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15:45 저 하늘에 태양이 17:10 여자의 비밀 19:40 구르미 그린 달빛 23:55 우리집에 사는 남자	◇ OCN 09:30 보즈 시즌11 12:30 메이저 러너 14:50 치외법권 17:10 스파이 19:40 엣지 오브 투모로우 22:00 루시
◇ TV조선 07:4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8:40 김광일의 신통방통 15:50 윤송이의 시사회 18:40 박종진 라이브쇼 20:0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이것은 실화다	◇ MBC드라마넷 08:30 불어라 미몽아 14:05 소꿉방 루미 16:20 좋은 사람 17:45 다시 시작해 19:10 캐리어를 끄는 여자 21:40 복면가왕	◇ 채널CGV 11:00 열정같은 소리하고있네 13:20 공룡 팬더 15:10 숲속으로 17:4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0 트랜스포터 22:00 더 랩스터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30 이슈 투데이 14:50 직언직설 16:20 레드남자 19:20 채널A 종합뉴스 23:00 풍문으로 들었SHOW	◇ SBS드라마 07:35 당신은 선물 11:35 사랑이 오네요 14:50 직언직설 17:20 미운 우리 새끼 19:10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21:45 백중원의 3대천왕	◇ 스크린 10:50 참수 12:55 액트 오브 벨러 15:05 필름 18:15 패션저스 20:00 오백쌍각룡 22:25 토피스테이: 지구 최후의 날

연예·오락	스포츠	뉴스
◇ Mnet 10:10 싱스타트립 13:10 MPD Music Talk 15:20 판 소리 18:10 M COUNTDOWN 19:50 Live on M 23:40 언퍼티 뱀스타	◇ KBS N 스포츠 12:00 2016 ATP 월드투어 바젤오픈<결승> 18:50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KEB하나은행> 22:00 킹카진의 개백리크 23:00 스페셜V	◇ 연합뉴스TV 08:00 라이브 투데이 09:50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위크 20:50 뉴스 Review 22:50 투니웃 23
◇ 코미디TV 08:35 개그콘서트 10:00 무한도전 13:05 맛있는 녀석들 15:40 백중원의 3대천왕 20:30 남과 함께 시즌2 21:45 코미디 빅리그 스페셜	◇ MBC 스포츠 플러스 09:00 2016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전 SET OF THE MATCH 당구월드컵 베스트샷 21:00 2016 KBO리그 플레이오프 하이라이트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 tvN 08:20 소사이어티 게임 12:00 THE K2 14:40 문재적 남자 19:40 리틀빅 히어로 20:40 명단공개 23:00 혼술남녀	◇ SBS 스포츠 12:00 EPL 10R 하이라이트 <사우스햄튼:첼시> 15:00 16-17 V리그 남자부 SET OF THE MATCH 19:00 WBS U-23 야구월드컵 <대한민국:멕시코>	◇ NIB 남인천방송(채널4) 08:30 네트워크 인천 10:00 NIB토크쇼 행복수다 11:00 평평 노래교실 15:30 2016 시청자 세상 19:00 NIB뉴스 20:00 TV건강과 생활

오늘의 운세

(김백창·수정원·최영민)  
☎010-5393-0338

<p><b>36년생</b> 새로 들어오는 재물은 관리가 더 중요.</p> <p><b>48년생</b> 경사가 겹치는 날.</p> <p><b>60년생</b> 식사를 대접할 일이 생길 것이다.</p> <p><b>72년생</b> 번수가 많은 하루이니 한시도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p> <p><b>84년생</b> 좋은 음식을 즐겨라.</p>	<p><b>39년생</b> 결정을 되도록 미루는 것이 이롭다.</p> <p><b>51년생</b> 유행이나 새로운 것에 신경 쓸 것.</p> <p><b>63년생</b>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p> <p><b>75년생</b> 이동, 여행, 출장 등이 예상된다.</p> <p><b>87년생</b> 마음의 갈등을 잘 다스릴 것.</p>
<p><b>37년생</b> 종두구매로 후회할 일 생길 수 있겠다.</p> <p><b>49년생</b>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것.</p> <p><b>61년생</b> 좋은 만남에 소비가 따른다.</p> <p><b>73년생</b> 칭찬하는 말에 겸손할 것.</p> <p><b>85년생</b> 스트레스는 즉시 풀어야.</p>	<p><b>40년생</b> 등잔 밑이 어두우니 주위를 잘 살필 것.</p> <p><b>52년생</b> 뜻대로 진행해도 좋다.</p> <p><b>64년생</b>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p> <p><b>76년생</b> 도무지 내키지 않는 귀찮은 일 생길 듯.</p> <p><b>88년생</b> 횡재수도 있으니 기대를 해봐라.</p>

<p><b>42년생</b> 친구들과의 유대가 돋보인다.</p> <p><b>54년생</b> 어려운 일에 직면하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p> <p><b>66년생</b> 일은 오후에 처리하라.</p> <p><b>78년생</b> 의지가 강해진다.</p> <p><b>90년생</b> 잘못된 일 오늘 개선할 수 있다.</p>	<p><b>45년생</b> 잠시 살펴봐야 한다.</p> <p><b>57년생</b> 잔머리를 굴리거나 요령 피우지 말고 성실히 임할 것.</p> <p><b>69년생</b> 과음, 과식은 절대로 하지 말 것.</p> <p><b>81년생</b> 직접 눈으로 확인 하고 보겠단 믿을 것.</p> <p><b>93년생</b> 초심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것이 좋겠다.</p>
<p><b>43년생</b> 고집 버리면 그룹에 해를 끼칠 수 있다.</p> <p><b>55년생</b> 민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움직일 것.</p> <p><b>67년생</b> 먼저 양보하라.</p> <p><b>79년생</b>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운 날.</p> <p><b>91년생</b> 이것저것 밝혀 놓으면 손해 보겠다.</p>	<p><b>46년생</b> 쉽게 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p> <p><b>58년생</b>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p> <p><b>70년생</b> 인간관계가 잘 풀리겠다.</p> <p><b>82년생</b> 바쁘지만 할 뿐 실속이 없다.</p> <p><b>94년생</b> 낯선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p>

## 예림일터의 종이컵에는 근로 장애인의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근로 장애인들의 삶과 사회와의 소통창구,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  
판매수익금은 지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의 급여와 직업재활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POINT 01 예림일터의 종이컵은 100% 무형광 천연필름을 사용하여 위생적!
- POINT 02 공장 직접생산을 통해 표준화된 품질과 빠른 사후처리를 제공!
- POINT 03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보유!

해피타임 종이컵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아이스컵&홀더&캐리어

정수기용 위생봉투컵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19, 101호(주안동, 창보빌딩)    전화 : 032-529-2677    팩스 : 032-529-2678    홈페이지 : www.iyerim.com

# 작품으로 재창조된 기억 예술, 과학을 품어내다

월요일에 만나는 예술인

정가희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사진공간 배다리서 내달 11일까지 '생각의 박물관' 전시  
뇌파 읽어 내 3D 프린터로 작품 제작... 실험정신 돋보여

"예술은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이성중심적인 철학을 반영한 세계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에 예술을 입힌 그런 작품들을 이번 인천 전시에서 선보입니다."

인천시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사진 전문 갤러리 '사진공간 배다리'에서 '생각의 박물관(10월 28일~11월 11일)'이란 전시를 열고 있는 정가희(30)큐레이터의 설명이다.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사진과 영상, 조각이 어우러진 설치예술인데다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실험성이

강한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기회다. 독특한 전시를 연 정가희 큐레이터 역시 예술가로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인천 계산여고·계원예술대를 졸업해 배를린 국립예술대에서 순수미술로 학사·석사과정을, 런던주립연극대에서는 인지신경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학을 품은 예술이어서일까, 전시회 소개 글부터 어렵다.

'뇌전도를 읽는 EEG-Reader'를 이용해 뇌파를 읽어 그 정보를 저장 후 3D 프로그램인 Rhino를 이용, 그 정보를 모델링해 입체로 설계 후 3D 세라믹 프린터를 사

용해 도자기로 출력한 작업'이라는 내용이다.

"전시 제목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예술로 표현한 거랍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 할머니가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뇌파로 읽어 내 3D 프린터를 이용해 하얀 도자기로 제작해 본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사람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작품은 그런 나쁜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빼내 형상화한 것이예요. 독일 현대미술 작가로 유명한 스승 토마스 쥘 교수에게서 원하지 않은 생각을 기계로 읽어 내 검은 도자기로 만들어 봤어요."

예술가로서의 꿈도 전시 제목처럼 '생각의 박물관'을 차려 보는 것이란다.

"최근 뇌파에 대한 활발한 연



할머니의 뇌파를 읽어 3D 프린터로 제작한 백자.

구로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파로 읽어 이미지로 재생성하는 연구가 일본에서 성공했거든요. 이처럼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감정적인 경험과 과거의 순간들을 예

숭작품으로 재창조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약력 소개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달려온 인생치곤 굴곡이 별로 없어 보였다.

"남들이 행운의 연속이라고 말

할 만큼 좋은 일만 생겼어요. 하지만 국내 대학 졸업 후 말로만 들었던 독일 교수를 무작정 찾아 갈 정도로 독일 현대미술을 배워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지금의 스승이신 그 교수님이 제 작

품을 보시고 짧은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 뒤에 그러시던데요. 'O K,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렇듯 예술에 대한 열정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 트로트 즐기며 중장년 추억 소환

내달 4일 하남문화재단 기획  
청춘열차 김연자·설운도 공연



가수 김연자(왼쪽)와 설운도.

하남문화재단이 11월 4일 트로트 청춘열차 김연자·설운도 콘서트를 선보인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는 하남문화재단이 이달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획한 '케미콘서트 정엽&거미'에 이어 중장년층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원조 한류 스타 '김연자'와 영원한 트로트 아재 '설운도'의 히트곡들을 만날 수 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이 매력적인 가수 김연자는 1974년 '말해 줘요'로 데뷔한 후 '천하장사 만만세'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씨름의 노래', 서울 올림픽 찬가 '아침의 나라에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철, 태진아, 송대관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설운도는 1983년 데뷔 앨범의 수록곡 '잃어버린 30년'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이후 '마음이 울적해서', '혼자이고 싶어요', '다함께 차차차', '여자 여자 여자'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연속 히트해 국민 트로트 스타로 자리잡았다.

이 두 국가대표 트로트 스타가 펼치는 이번 공연은 그들의 히트곡 '삼바의 여인', '누아', '사랑의 트루스트', '수은등', '10분 내로', '아침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의 카피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16인 조 양희봉 악단의 연주로 더욱 신나고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다.

'김연자·설운도 콘서트'와 함께 하남문화재단은 중장년층을 위한 공연으로 장사의 소리판 '꽃인듯, 눈물인듯'을 기획하고 있으며 '뮤지컬 파라렐리', '체코 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 내한공연' 등 다양한 세대가 취향에 맞게 골라볼 수 있는 기획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남문화재단의 공연 정보 확인 및 티켓 예매는 재단 홈페이지(www.hnart.or.kr)에서 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내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나눔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정기연주회로 재단 후원회원들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 가는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의정부) 아이들 44명이 출연해 총 100분 동안 음악 향연을 펼친다.

1부에서는 섬세함과 조화로운 이 돋보이는 현악과 관악 앙상블을 선보이며, 2부에서는 신세계 교향곡, 샹젤리제 등 귀에 익숙한 음

악을 오케스트라 편곡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고통받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음악과 나눔이 하나가 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연주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 좌석 무료 초정으로 이뤄진다. 티켓 예약 및 관련 문의는 초록우산 의정부마음로 연락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웃음 폭탄

코믹 연극 '수상한 집주인'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서  
문화 소외층 등 관객맞이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반월아트홀이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5일 '수상한 집주인' 공연을 진행한다.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

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지방 문화 예술회관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공연예술 문화향수권 신장을 돕고자 복권기금 공익사업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하며, 전체 좌석의 30% 이상을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한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회관(지방자치단체)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수상한 집주인'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코믹 연극으로, 능청스러운 배우들 연기와 탄탄한 구성으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설 새 없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진행되며, 공연 안내 및 예매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 공연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포천=박득중 기자 pdj3015@

# 제13회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The 13th National Youth's Art&Culture Festival for the Korea's Re-unification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글짓기·그림그리기·웅변대회

시상내역 : 통일부장관상, 인천광역시장상, 인천시의회의장상, 인천시교육감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교육장상 등

접수기간 글짓기·그림 - 2016년 11월 1일(화) ~ 11월 18일(금)까지

웅변 - 2016년 11월 1일(화) ~ 11월 11일(금)까지

웅변대회 2016년 11월 19일(토) 11시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주제 남북평화통일에 관련된 내용

작성방법 모든 출품작에 제목, 소속학교, 학년 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뒷면 기재

글짓기 - 200자 원고지 반드시 자필로 작성(장르는 자유)

초등(표지포함 7매 이상), 중등(표지포함 8매 이상), 고등(표지포함 10매 이상)

그림 - 초등(8점), 중·고등(4점) 도화지, 크레파스화, 수채화(도화지 개인준비)

웅변 - 200자 원고지 반드시 자필로 작성(표지포함 5매 이상)

기타 인터넷 복사 또는 대필원고, 타 대회 출품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순수한 학생의 생각과 실천방법 등 서술(우편 및 방문접수 관계로 학생수준에 맞춰 심사)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글짓기·그림 - 11월 18일, 웅변 - 11월 11일 도착분까지)

- 인천광역시 남구 인종로5 정선빌딩 9층 기호일보 총무국

문의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7 또는 http://www.kihoilbo.co.kr

푸르미가족봉사단 032)435-5353 또는 http://cafe.naver.com/purumi1004



주최 기호일보 주관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푸르미가족봉사단  
후원 통일부 인천광역시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600여명 참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안산호수공원 중앙 광장에서 '2016년 응급처치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7개 팀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하고 연습해 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필기(이론)와 실기(심폐소생술, 상처처치) 등에 대한 경연으로 진행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수원중 학생들 축제 수익금 아프리카 아이들에 보탬

수원중학교가 최근 개최한 학교 축제 '틀미누리마당'에서 플라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200여만 원을 NGO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118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기빙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중은 이번 축제에서 '스쿨미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쿨미 캠페인은 빈곤과 사회적 약함 및 편견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아프리카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부금은 아프리카 교육 시설 개선과 교사 양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성남도시개발공 유관기관 등과 청렴실천 결의 대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2016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임직원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선언, 청렴실천 서약식, 이사회한 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의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사 조성과 부패 유발 요인인 알선·정탁을 근절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서약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부천소사뿔 여성안심귀갓길에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부천소사경찰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에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안내표지판 현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소사서는 4개월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관내에서 여성이 특히 위험을 느끼는 범죄 취약지역 위주로 범죄예방진단팀의 시설 진단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9개 노선을 확정했다. 소사서 관계자는 "귀갓길 9개 노선 환경 개선은 부천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해 노면 표지 27개소, 위치 안내표지판을 33개소에 각각 설치 완료했다. 또한 위치 안내 표지판에 기재된 번호는 112상황실의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돼 유사시 즉응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남한생활 성공 정착' 멘토와 손잡고 차근차근

도, 북한이탈주민-지역주민 총 60명 일대일 결연 맺고 교감 기회 만들어 생활상담·경제적 자립 지원 등 나서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는 '남북한 주민 멘토·멘티 결연 행사'가 지난 28~29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해 신규 결연자, 기존 결연자(40명), 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사회단체 출신 도민과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사회 배출 후 3년 미만) 도민 총 30쌍, 60명이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인연을 맺었다. 멘토와 멘티들은 결연증서에 서명한 후 장기자랑, 남북한 알리기 퀴즈대회, 멘토·멘티 산책로 걷기, 한마음 한뜻(대회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고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멘토들은 북한이탈주민 멘티들에게 지속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생활상담, 경제적 자립활동 지원, 안정적 사회 정착 유도를 돕게 된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장 정착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실



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8천177명으로, 전국 2만7천541명 대비 29.6%로 가장 많다. 도는 북한이탈주민 결연사업, 언어소통교육, 한국문화이해 증진사업,

취업성공캠프, 돌봄상담센터 운영, 전일 초기 생활용품 지원, 맞춤형 취업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아이들 무대 보며 마을 축제 분위기

가평 연하초교 ECHO 한울림 축제 달콤 공연·작품전시 등 학부모 호응

혁신학교 가평 연하초등학교는 지난 28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통합 종합 축제인 '연하 ECHO 한울림 축제'를 가졌다. 과정을 중시하는 배움, 참된 앎을 기반으로 한 배움, 앞이 삶의 바탕이 되는 연하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그간의 교육 결과를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이번 축제는 작품전시회와 학예발표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3~6학년의 '얼쭈~ 신나게 놀아보세' 탈춤 공연으로 ECHO 한울림 축제의 막이 올랐다. 이후 식단에 마련된 작품 전시 관람과 포토 타임에 이어 다목적실에서는 학예발표회가 진행됐다. 학예발표회가 잠깐 쉬어 갈 때 화면에서는 '학교에서 지킬 일', '우리들의 연극 이야기', '내가 3학년이 된다면' 영상이 흘러나왔다.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공연을 통해 그동안 노력한 모습을 여과없이 볼 수 있었다.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공연복을 갖춰 입은 모습을 보니 정말 예쁘고 멋있었다"고 말했다. 가평=염건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다문화 여성들 장 담그며 이웃 정 배웠네

아이코리아 하남시지회 체험행사

다문화 가정 여성 등 60명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41가구,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시립어린이집 6개소, 광복회 및 어려운 가정 등에 500여 개의 된장·간장 등을 전달했다. 특히 결연을 맺은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 지난 2월께 담가 먹기 좋게 숙성된 된장·간장

과 행사 당일 돼지감자 효소로 만든 전통 고추장을 나눔으로써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도 됐다. 아이코리아 하남시지회 관계자는 "비록 회원들이 조금씩 회비를 내 어려운 예산으로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을 떠나 멀리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보면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며 "해마다 해 온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문화가정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눠 줌으로써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각본부터 촬영까지... 꼬마PD들이 해냈다

군포 태을초도 청소년119안전경진 1위 등하곳길 위험요소 영상에 그려내 호평

군포소방서는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태을초등학교가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15개 학교가 참가한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활 속의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동영상(UCC)으로 제작·출품해 창의성과 작품성을 겨뤘다. 태을초는 주인공의 등교부터 학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에피소드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제작, 심사위원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을초는 오는 11월 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18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위해 현재 제작 영상 무대 재연 발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경진대회를 이끈 송승희 학부모는 "학생들이 열정을 갖고 밤낮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영상 촬영에 맘 들린 보람을 스스로 느끼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전국대회인 만큼 무대 재연 발표 준비도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박원규 기자 wkp@khihoilbo.co.kr

재난현장 지키는 견공들 '최고 실력' 발휘

남양주소방서 인명구조견 수안이·대담이 전국 경진대회서 단체전·개인전 최상위

남양주소방서의 인명구조견 수안이(8)와 대담이(6)가 2016년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1, 2위를 휩쓸며 인명구조견 분야 최고임을 증명했다. 지난 27일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대담이가 단체전 1위, 수안이가 개인전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대회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26개 팀과 민간 10개 팀 등 36개 팀이 참가했다. 남양주소방서 인명구조견은 지난 6월 시흥시에서 실종된 80대 노인을 투입 한 시간 만에 갈대숲에서 발견하는 등 각종 재난 현장에 621



건 출동, 30명을 구조했다. 사람보다 뛰어난 후각과 발달한 청각을 바탕으로 충실한 임무 수행을 해 온 안전지킴이다. 현재 남양주소방서에는 9월 태백이(9)가 은퇴하고 수안이와 대담이 2마리가 교대로 활동하고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폭력·담배없는 학교 만들기 한뜻

연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4~28일 연천중·고교 앞에서 '학업 중단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금연을 다짐하는 서약서 작성, 금연 다짐 문구 외치기, Wee센터 홍보물품 배부 등의 내용으로 흡연과 학교폭력 같은 위기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천교육지원청 박태훈 장학사는 "흡연 및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학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다가가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 한복 입고서 전통 차 예절 뽐내기 삼매경

### 전국 경연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가천대생 류지현 씨 대상 영예

전국 최대 규모의 차 문화전인 '제17회 전국 인설차문화전-차예절 경연대회'가 29일 가천대 메디컬캠퍼스에서 성대하게 끝났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관석·나경원 국회의원, 이길여 가천대 총장,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 예선을 거친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합을 펼쳤다.

류지현(가천대 3년)씨가 대상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한국민속과 예라는 교양수업을 듣고 차 예절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됐다”며 “대상을 차지한 만큼 우리 차(茶)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치부에서 대학부까지 5개 부문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인천 명신여고가 고등부 부문상을 휩쓸었다. 장윤지(인천시청상)·이진아(규방다례보존회장상)·이재연(청소년연맹회장상)·서린(가천대총장상)·김민지(가천박물관장상)·이소현(길병원장상) 등 6명이 수상자로 뽑혔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 인사

| 성남시 | ◇승진 <4급> ▶행복도시창조담당 김옥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5급> ▶일자리창출과 길관철 김순옥 ▶주택과 박명양 ▶세정과 전석배 ▶회계과 한정심 ▶교육청소년과 서재섭 ▶교통기획과 신성렬 ▶공보관실 오상수 ▶교통기획과 박철규 ▶토지정보과 윤상수 ▶도로과 조재식 ▶행정지원과 이강석 ▶예산법무과 임명순 ▶건축과 임광호 윤남업 ▶정책기획과 정인목 ▶공원과 이성록 ▶아동보육과 허은 ▶식품안전과 홍경래

◇전보 <4급>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5급> ▶재난안전관 엄갑용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비서실장 차상철 ▶자치행정과장 신경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청소행정과장 오재근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증원구 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증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수 <6급> ▶평생학습운영팀장 오진원

◇겸임 ▶수정구 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 손성림 ▶가정복지과장·사회복지과장 이연자 ▶증원구 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 이창호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시민복지과장 김권병 ▶가정복지과장·사회복지과장 김재군 (11월 1일자)

### 이주서

◇승진 <6급> ▶건설과 서동분 ▶허기지원과 김범수  
◇전보 <6급> ▶홍보감사담당관 조사팀장 김홍수 ▶민원봉사과 임영신 ▶회계과 계약팀장 심경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수중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혜란 ▶평생학습센터 오정숙 ▶가남읍 ▶금사면 김봉자 ▶산북면 김문수 ▶여흥동 박경자 (11월 1일자)

### 알림

▶고양시 청년캠퍼입=31일(월) 오전 9시 통합일자리센터.  
▶군포시 제8회 경로당 단합 체육대회=31일(월) 오전 10시 제1체육관.  
▶제8회 의왕시장애 골프대회=31일(월) 낮 12시 용인프라자CC.  
▶고양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토론회=31일(월) 오후 2시 일산동구청.  
▶새무궁화장학회 창립 기념행사=31일(월) 오후 2시 무궁화장학회관.  
▶TBN 인천교통방송 2016 교통통신원 제보 축전대회 및 개국 15주년 특별공연=11월 1일(화) 오후 6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결혼

▶김병철(김대식·윤혜숙 씨 장남)·권보람(권진수 인천명연교 교장·황재복 씨 장녀)양=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 노년동성당. ☎02-548-2443  
▶이민일(이강현 대경공인중개사 대표·장은자 씨 장남)·하유진(하형근·장금여 씨 장녀)양=11월 6일(일) 오후 1시 KIW컨벤션센터(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27) 다이아몬드홀. ☎02-598-3000

### 부고

▶박영식(전 상명대 교수)씨 부친상, 최계운(인천대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씨 부친상=30일 오후 4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월 1일 오전 8시. ☎010-6419-8467

### 세일극

## 공사·농어촌의 새 역사 열겠다



### 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제8대 신입 사장으로 정승(58) 전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정 사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식약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 정승 사장은 “강한 도전정신, 화합과 소통으로 공사와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혁 기자 kjh@kiohoilbo.co.kr



### 인천경제 TP 봉사단 강화군 고촌4리 찾아 일손 도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경제TP)는 지난 28일 '1사1촌'인 강화군 고촌4리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였다. 직원 40여 명으로 꾸려진 '농촌사랑 일손돕기 봉사단'은 이곳 농민들과 밭에서 조를 수확하는 등 가을걷이를 도왔다. 인천경제TP는 2010년 7월부터 고천4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포도와 말린 고추, 고구마 등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 체험행사 등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건태 기자 jus216@kiohoilbo.co.kr



### 인천시 남동구 등 희망나눔 바자회 수익금 50% 복지 취약계층에 지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8일 구청에서 한창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이마트 인천권역(총괄 이수철) 공동 주관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10여 개 부스에서 아동완구,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이마트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10~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바자회 시작에 앞서 남동구 취약계층 2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장석현 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에 동참해 주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이마트 인천권역,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자회 수익금의 50%는 남동구의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이송훈 기자 hun@kiohoilbo.co.kr



###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호스피스의료센터장 말기암 환자 위한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이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16년 완화의료주간 기념식'에서 김대균 센터장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김대균 센터장은 2010년부터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회원이사로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제도 수립 과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일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개발·운영해 말기암 환자를 도운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기자

## 환자 이송~격리치료 실천 방불케한 감염병 대응

### 가천대 길병원 재난 모의훈련 실시 이근 병원장 “다양한 상황 대처 노력”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7일 병원 내에서 '감염병 대응 재난 모의훈련'을 가졌다.

훈련은 보건소로부터 신중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는 것으로 시작돼 환자의 도착, 이송, 격리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 실제처럼 진행됐다. 길병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본원 11층의 국가지정응급 시설과 연계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자의 진료, 이송, 격리치료와 관련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국가재난급 감염병에 충실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근 병원장은 “국가재난급 감염병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모의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jus216@kiohoilbo.co.kr

## 도시락 등 전국 곳곳 강화 쌀 만나보세요

### 군·농협양곡·한솔 농산물 판매 MOU

강화군은 지난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협양곡(주), ㈜한솔과 강화군 농산물 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최대 양곡 거래회사인 농협양곡(주)과 도시락업계의 선두 주자인 ㈜한솔은 강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속적 판매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과 더불어 산지와 소비자의 유통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강화 쌀 생산의 10%인 5천을 (주)한솔에 판매하게 되며, 판매 방식도 씻지 않고 밥을 지을 수 있는 무세미로 가공해 부가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양파, 대파 등 쌀 외의 농산물 판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2@kiohoilbo.co.kr

## 도화지 속 가족 나들이 형형색색 절로 웃음꽃

### 대한항공 사생대회 대전양지초 팀 1등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제8회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사생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9월 24일 본사 격납고에서 '하하호호 웃음이 가득, 행복한 우리집'이란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이들 작품 중 5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1등은 방소현·장혜정(대전양지초)어린이 팀이 그린 '웃음꽃 생일파티'가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들이 간 장면을 안정적인 색감으로



이날 방침이다. 농협양곡(주)은 전국의 농업인과 지역 농협에서 생산한 쌀, 잡곡 등을 판매하고 RPC들 간의 비 중계 사업을 하는 회사로 강화군 농산물 판매 및 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2@kiohoilbo.co.kr



할기차게 묘사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1등 수상자에게는 미국 보잉사 견학 기회가 주어진다. 2등상은 라한결·유해인(부천양지초·부천부안초)어린이 팀의 '포근한 우리 가족', 최홍준·최여진(인천상아초)어린이 팀의 '자연과 가족인 우리 가족'과 장진영(광주만호초)어린이의 '선물받은 사람'이, 3등상은 김소예(서울평화초)어린이의 '달리자, 해피 레일 바이크' 등 6개 작품이 차지했다. 지건태 기자 jus216@

### 미래의 화가들 참여 늘어 설레 순수한 표현력·완성도에 감탄

김난주 심사위원 [심사평]  
〈미술교육협의회 회장〉



밤새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소풍 전날 날씨 걱정하는 아이의 초조한 마음으로 비가 그치기만을 바랐다.

참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전국적으로 내린다는 비 예보를 비롯 이틀 아침부터 비는 찾아오고, 대회 시작 전은 다행히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송도의 센트럴파크 UN공원과 청라 호수공원 두 곳에서 열리는 대회 현장 중 하나인 청라 호수공원에 도착하니, 걱정과 다르게 삼삼오오 부모님과 화구를 든 참가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 모두는 비 온 후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으며, 마음껏 도화지에 자신의 미래 도시를 꿈꾸며 설계하듯 표현해 나갔다.

올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와 청라 두 군데로 나누어져 지난 해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됐다. 주관본부는 탄탄한 조직력을 발휘해 안전하고 즐겁게 대회를 준비했고, 올해로 다섯 번째 대회를 거치며 인천 어린이 문화예술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잡아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열심히 미래 도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림에 열중하는 젊은 화가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었다. 대회 본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는 이런 행복이 가득한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다.

올해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현직 작가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그린 후 제출하는 작품인 만큼 주제를 이해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본으로 했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은 순수한 어린이 작품, 고학년은 심미성을, 중·고등부는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엄중하게 선별했다.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많아진 참여 수로 충분히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입상하지 못한 심사위원 모두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상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에게도 수상자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격려를 전하고 싶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제출한 작품 대부분이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작품들로, 심사하는 내내 감탄과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참여 작품 수가 적어지고, 중·고등부 또한 참여가 적은 것이 아쉬웠지만 몇몇 작가 수준의 우수한 작품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미술교육 시간이 적어지며 미술교육이 엘리트 교육화 돼 가는 작금의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걱정하며 책임을 갖는 시간이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초등 5학년 작품과 중등부 작품은 심사위원 전체의 추천으로 입상을 이뤘다. 또래가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함과 완성도 높은 작품성에 절로 엄지를 치켜들며 멋진 작품이었다.

언어의 또 다른 표현인 그림 그리기가 유치부나 초등 저학년 때 거치는 수준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 폭넓게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성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성찰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모든 이들이 쉽게 접하고 표현하며 기쁨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미술이 자리하기를 소망해 본다.



초등부 대상  
육윤찬 - 먼우금초 5학년

“높고 멋진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송도국제도시를 배경으로 제가 꿈꾸는 미래 도시를 그려나갔어요.”

지난 8일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에서 열린 '2016 제5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에 참가해 문화체육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한 먼우금초등학교 5학년 육윤찬(12)학생의 소감이다.

육 군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내가 생각하는 인천의 미래 도시'를 보고 평소 좋아하던 송도국제도시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싶었다”며 “송도는 사람들이 지은 멋진 건물도 많지만, 공원 같은 자연환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같은 도시가 미래 도시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학교에서 환경(ECO)건축과 관련된 수업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건물에 대한 지식이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열린 대회에도 참여한 육 군은 “대회에 참가해 물통, 탁자 등 준비해야 하는 지 몰라 제대로 그리지도 못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다”며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대회는 미리 준비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송도국제도시 배경으로 '내가 꿈꾸는 도시' 그려



화가 꿈꾼다는 육 군은 두 달 전부터 집 주변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세밀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심에서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아 밥 시간도 있는 경우가 찾아 부모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다”며 “피카소도 어렸을 때 1년 동안 '닭발'을 그리며 세밀화 연습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제 그림을 잘 표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육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림을 좋아하고 그리는 것을 즐기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미술에 대해 잘 몰라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했던 부모로서는 대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hihoilbo.co.kr



중등부 대상  
최지슬 - 부일여자중 3학년

“세 번째로 참가한 대회라 대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수상하게 되니 더 뿌듯하네요.”

지난 8일 열린 '2016 제5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중등부 대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부일여자중학교 3학년 최지슬 양은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최 양은 2014년 제3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번째 참가하고 있다. 제3회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제4회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아 이번 대회에서는 꼭 대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고 한다.

최 양은 “부모님의 권유로 미래도시그리기대회에 2014년 처음 참가하게 됐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마음이 가고 더 잘하고 싶은 대회”라며 “올해 조금 더 노력하면 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렸는데, 정말로 대상을 받게 되니 더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 양은 미래의 자동차를 타고 풍경을 가르느 한 노인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다. 미래 도시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그 아래 보이는 빌딩숲이 인상적일 법도 하지만, 최 양은 주인공이 '노인'이라는 설정으로 차별화를 뒀다.

최 양은 “보통 그림에서 가장 큰 인물은 젊은 사람으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에는 대다수의 주인공이 노인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 고령화 사회 반영... 미래 車 탄 노인의 모습 표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전 대회와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대회가 열려 최 양은 대회 당일 가족과 함께 청라를 찾았다.

최 양은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날씨도 추웠지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앉아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해서 좋았다”며 “청라 호수공원 주위가 발전한 모습이라 '미래 도시'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제 최 양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것을 꿈꾸며 예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양은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보는 눈을 즐겁게 하면서도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한다”는 다짐을 밝히며,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미래도시그리기대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계속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인천광역시 INIS 인천정보산업진흥원 Incheon Information Service

경축 인천 N 방송 네트워크 시스템 수출 개시

인천N방송 접속자수 100만 돌파 (2015년 11월 기준)

애플TV 통한 전세계 280개국 송출

인천N방송 네트워크 중국 등 해외수출 개시

인천가치 재창조 지역방송발전 아젠다 선정

▶ 인천N방송 참여 혜택

- 지역신문 오늘의 화제뉴스 보기
- 전문기자의 현장뉴스 시청
-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부터 관광, 행정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
- 남인천방송 내 인천N방송 프로그램 (월일제) 시청 가능
- 대학 방송학과 작품 등 고품질 영상 시청

▶ 인천N방송 참여 방법

- 웹사이트: www.incheonNtv.com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인천N방송] 앱 검색
- 서비스문의: (032)250-2142-3



-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인천광역시의회위원장
- ◇우수상:교육장상, 연수구청장상, 기호일보사장상
- ◇장려상:연수구의회위원장, 기호일보사장상
- ◇입선:기호일보사장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조동부 : 인천민주금초 옥윤찬

교육부장관상  
조동부 : 부일여중 최지슬



**최우수상**

유지부 ▶ 인천청담초병설유치원 신호연 ▶ 프라임에지유치원 배예성 ▶ 인천도담초병설유치원 정성민 ▶ 카푸친어린이집 정수관 ▶ 소라유치원 오윤재 ▶ 한신유치원 김도겸

조동부 ▶ 인천가정초 이해윤 ▶ 인천명선초 강승하 ▶ 인천가좌초 장민준 ▶ 인천경각초 김진서 ▶ 인천정일초 이다은 ▶ 인천원동초 신승아

중등부 ▶ 해송중 한수정 ▶ 박문중 신서희 ▶ 청량중 김예빈 ▶ 남동중 염효빈 ▶ 가현중 김유진 ▶ 인천여중 김은별


고등부 ▶ 신송고 박홍윤 ▶ 인천해송고 박연수 ▶ 인천연송고 이을 ▶ 박문여고 이하경 ▶ 박문여고 김영진 ▶ 인천논현고 장민아



**우수상**


유지부 ▶ 청라보석어린이집 유하라 ▶ 예일유치원 송세림 ▶ 인천민주금초병설유치원 류지민 ▶ 아립유치원 정현우 ▶ 한신유치원 옥소은 ▶ 다빈치마을미술학원 경규성 ▶ 한신유치원 서가영 ▶ 한샘어린이집 김민영 ▶ 인천청담초병설유치원 강혜진 ▶ 인천한빛초병설유치원 성하울 ▶ 청학유치원 김경한 ▶ 동심유치원 김하윤 ▶ 근산유치원 김성윤 ▶ 한샘어린이집 안나경 ▶ 작은꽃예능유치원 김지호 ▶ 글로벌유치원 반서울 ▶ 청송유치원 문예빈 ▶ 한샘어린이집 양승현 ▶ 엄지유치원 신예은 ▶ 한샘어린이집 최다영 ▶ 인천동춘초병설유치원 박성태 ▶ sky earth유치원 조예지 ▶ 근산유치원 김주희 ▶ 송도폴리유치원 진효원 ▶ 꿈동산유치원 김윤성 ▶ 한샘어린이집 양가은

조동부 ▶ 인천대월초 이재이 ▶ 인천장수초 김인석 ▶ 인천영선초 한재호 ▶ 인천명선초 이연두 ▶ 인천청담초 최시원 ▶ 인천



**장려상**

유지부 ▶ 구월유치원 전아린 ▶ 한신유치원 주시은 ▶ 한샘어린이집 허유정 ▶ 레인보유치원 박보은 ▶ 빛나는사인유치원 장도훈 ▶ 다빈치마을미술학원 신지예 ▶ 인천성지초병설유치원 신이라 ▶ 해나라유치원 정은슬 ▶ 다예린이어린이집 흥가은 ▶ SLP유치원 이다솔 ▶ 인천축현초병설유치원 김해나 ▶ 인천가림초병설유치원 모현진 ▶ 인천성리초병설유치원 우하연 ▶ 한샘어린이집 한에서 ▶ 하은어린이집 안지우 ▶ KCC유치원 한다인 ▶ 인천신송초병설유치원 윤본 ▶ 아이엠미술학원 한여원 ▶ 한울유치원 신서윤 ▶ 한샘어린이집 신현호 ▶ 청라푸른어린이집 정어진 ▶ 인천원동초병설유치원 지민성 ▶ 선미유치원 이서윤 ▶ 인천간지초병설유치원 김은하 ▶ 작은꽃예능유치원 신원하 ▶ 한샘어린이집 김도현 ▶ 송도폴리유치원 박지오 ▶ 느티나무어린이집 박은별 ▶ 세종유치원 한태울 ▶ 한스랭유치원 조아윤



**입선**

유지부 ▶ 꿈이있는아이풀어린이집 최현수 ▶ 다빈치마을미술학원 김예을 ▶ 키즈월드유치원 김효연 ▶ 인천검단초병설유치원 이서울 ▶ 재현어린이집 윤해인 ▶ 인천해원초병설유치원 허정연 ▶ 해맑은어린이집 권솔 ▶ 예일어린이집 이서울 ▶ 여러유치원 김민승 ▶ 송월유치원 윤준호 ▶ 배곧초병설유치원 허희재 ▶ 인천신송초병설유치원 나선우 ▶ 한샘어린이집 박성빈 ▶ 보나유치원 유태형 ▶ 큰사랑유치원 이지은 ▶ 성가정유치원 김가은 ▶ 호정숙아어린이집 고은을 ▶ 인천정일초병설유치원 마예솔 ▶ 한샘어린이집 송재준 ▶ 한샘어린이집 이지호 ▶ 인천도담초병설유치원 바다호 ▶ 도담유치원 채수빈 ▶ 한샘어린이집 박수빈 ▶ 한샘어린이집 방민재 ▶ SLP유치원 최서연 ▶ 성바오로유치원 윤가은 ▶ 공전유치원 이재아 ▶ 현대유치원 지연우 ▶ 인천정일초병설유치원 조소을 ▶ 솔빛유치원 우서울 ▶ 동그라마이어린이집 이다경 ▶ 인천신송초병설유치원 오윤서 ▶ 경희유치원 최준혁 ▶ 아름솔유치원 고민서 ▶ 인천동춘초병설유치원 김수석 ▶ 근산유치원 박소은 ▶ 한샘어린이집 하현주 ▶ 한샘어린이집 김민지 ▶ 한샘어린이집 이도규 ▶ 한샘어린이집 박건하 ▶ SLP유치원 김민성 ▶ 한샘어린이집 심현준 ▶ 한샘어린이집 이재은 ▶ 한샘어린이집 김보경 ▶ 아트피아미술학원 이준수 ▶ 인천학교유치원 최지은 ▶ 인천용마초병설유치원 양태윤 ▶ 한샘어린이집 강서연 ▶ 한샘어린이집 문수인 ▶ 인천해원초병설유치원 강민석 ▶ 보나유치원 최윤우 ▶ 송도국제유치원 조은을 ▶ 현대유치원 류효현 ▶ 한샘어린이집 이가은 ▶ 리틀아메리카유치원 김나연 ▶ 인천공촌초병설유치원 김도건 ▶ 마리아유치원 이승미 ▶ 인천학교유치원 최희수 ▶ 한샘어린이집 진재영 ▶ 인천서흥초병설유치원 김하경 ▶ 셋별유치원 신지아 ▶ 한샘어린이집 정은후 ▶ 이화유치원 정예지 ▶ 소명유치원 강승아 ▶ 정학유치원 오윤서 ▶ 해송유치원 최유나 ▶ 하나키즈어린이집 이영재 ▶ 재현어린이집 권민교 ▶ 이화예능어린이집 마종혁 ▶ 청라푸른어린이집 황정음 ▶ 논현어린이집 전예성 ▶ 엄지유치원 신예린 ▶ 한샘어린이집 이한결 ▶ 인천청라초병설유치원 이예준 ▶ Jics 이연지 ▶ 청심유치원 민지예 ▶ 청학유치원 정해원 ▶ 인천신송초병설유치원 윤주 ▶ 비전유아스쿨 심소은 ▶ 성광유치원 정유희 ▶ 인천상아초병설유치원 박은서

유지부 ▶ 청라보석어린이집 유하라 ▶ 예일유치원 송세림 ▶ 인천민주금초병설유치원 류지민 ▶ 아립유치원 정현우 ▶ 한신유치원 옥소은 ▶ 다빈치마을미술학원 경규성 ▶ 한신유치원 서가영 ▶ 한샘어린이집 김민영 ▶ 인천청담초병설유치원 강혜진 ▶ 인천한빛초병설유치원 성하울 ▶ 청학유치원 김경한 ▶ 동심유치원 김하윤 ▶ 근산유치원 김성윤 ▶ 한샘어린이집 안나경 ▶ 작은꽃예능유치원 김지호 ▶ 글로벌유치원 반서울 ▶ 청송유치원 문예빈 ▶ 한샘어린이집 양승현 ▶ 엄지유치원 신예은 ▶ 한샘어린이집 최다영 ▶ 인천동춘초병설유치원 박성태 ▶ sky earth유치원 조예지 ▶ 근산유치원 김주희 ▶ 송도폴리유치원 진효원 ▶ 꿈동산유치원 김윤성 ▶ 한샘어린이집 양가은

조동부 ▶ 인천대월초 이재이 ▶ 인천장수초 김인석 ▶ 인천영선초 한재호 ▶ 인천명선초 이연두 ▶ 인천청담초 최시원 ▶ 인천

유지부 ▶ 구월유치원 전아린 ▶ 한신유치원 주시은 ▶ 한샘어린이집 허유정 ▶ 레인보유치원 박보은 ▶ 빛나는사인유치원 장도훈 ▶ 다빈치마을미술학원 신지예 ▶ 인천성지초병설유치원 신이라 ▶ 해나라유치원 정은슬 ▶ 다예린이어린이집 흥가은 ▶ SLP유치원 이다솔 ▶ 인천축현초병설유치원 김해나 ▶ 인천가림초병설유치원 모현진 ▶ 인천성리초병설유치원 우하연 ▶ 한샘어린이집 한에서 ▶ 하은어린이집 안지우 ▶ KCC유치원 한다인 ▶ 인천신송초병설유치원 윤본 ▶ 아이엠미술학원 한여원 ▶ 한울유치원 신서윤 ▶ 한샘어린이집 신현호 ▶ 청라푸른어린이집 정어진 ▶ 인천원동초병설유치원 지민성 ▶ 선미유치원 이서윤 ▶ 인천간지초병설유치원 김은하 ▶ 작은꽃예능유치원 신원하 ▶ 한샘어린이집 김도현 ▶ 송도폴리유치원 박지오 ▶ 느티나무어린이집 박은별 ▶ 세종유치원 한태울 ▶ 한스랭유치원 조아윤

유지부 ▶ 인천청담초병설유치원 신호연 ▶ 프라임에지유치원 배예성 ▶ 인천도담초병설유치원 정성민 ▶ 카푸친어린이집 정수관 ▶ 소라유치원 오윤재 ▶ 한신유치원 김도겸

조동부 ▶ 인천가정초 이해윤 ▶ 인천명선초 강승하 ▶ 인천가좌초 장민준 ▶ 인천경각초 김진서 ▶ 인천정일초 이다은 ▶ 인천원동초 신승아

중등부 ▶ 해송중 한수정 ▶ 박문중 신서희 ▶ 청량중 김예빈 ▶ 남동중 염효빈 ▶ 가현중 김유진 ▶ 인천여중 김은별

고등부 ▶ 신송고 박홍윤 ▶ 인천해송고 박연수 ▶ 인천연송고 이을 ▶ 박문여고 이하경 ▶ 박문여고 김영진 ▶ 인천논현고 장민아

## 개인이나 기업[법인]보유물건처분과 구입 및 개발상담

공공·물류·아파트 부지·토지개발 및 상가·아파트 분양 등 전문 컨설팅을 만나보세요!

공개매각

인천 연안부두 일반상업지역 5,950㎡(1,800평) 10,909㎡(3,300평) 준공업지역 16,529㎡(5,000평) 23,140㎡(7,000평) 일반공업지역 3,966㎡(1,200평)

인천 송도해안도로 자연녹지지역(잡종지) 33,058㎡(10,000평) 66,116㎡(20,000평) 99,174㎡(30,000평)

인천 동구 만석동 일반공업지역 21,487㎡(6,500평)

인천 남동구 그린벨트(잡종지) 46,281㎡(14,000평) 6차선도로점

※2009년도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집 무료 배포※

부동산 관계자라면 꼭 필요한 책 (306페이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않고 나만 갖고 팔래 보고 싶은 책! 방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300명에게 (1인1부) 한정 배포합니다.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 G:in ASSET 부동산의 랜드마크 지인에셋 (406-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35-1 지인빌딩

TEL (032)7777-100, 7777-200, 7777-300, 7777-400, 7777-500 FAX (032)-7777-600

부천 등서 北 불온빠라 발견  
군·경 나서 5000여 장 수거

북한에서 날려 보낸 듯한 불온 빠라(선전용 전단)가 부천·김포·광명 등지의 시민들에 의해 수천 장이 발견돼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수거에 나섰다.

30일 부천시민 등과 관할 경찰에 따르면 전단은 고강선사유적지에서 범파위산과 지양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 등에서 발견됐다. 전단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들은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선전 문구가 담겨 뿌려진 전단을 주택가나 농경지 또는 등산로 주변 산속에서 수거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수거된 전단은 5천 매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시민들이 수거한 전단은 모두 12종류로 을지프리답가디언(을지자유수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백두산혁명강군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핵무기 사용 염포의 선전문구가 수록돼 있다.

또 “미군 장갑차에 의한 미션·호순 사건”의 내용을 담아 “주한미군 물아내자”는 등의 내용도 있으며 ‘연방제통일’ 주장이 담긴 민중운동연합 명의의 전단도 발견됐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동거녀 살해·시신 유기 40대  
안양동안뿔, 구속영장 신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30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동거녀 A(38)씨와 함께 살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경 변화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씨 주거지에서 혈흔 반응이 나와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안양=이정택 기자 jitlee6151@khihoilbo.co.kr

#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수... 무관심에 수백 년 뿌리 흔들

최대 수령 1000년... 장기동 화화나무 등 도내 거목 1099그루 관리 부실  
공사장 소음·먼지 등 유해환경 노출... 민원 접수 후 고사 사실 알기도

경기도내 수백 년 된 보호수들이 지자체의 엉성한 관리로 고사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보호수는 총 1천99그루에 달하고 있다.

이 보호수들은 수령이 최소 80년에서 최대 1천 년까지 달하고 있으며 주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느릅나무 등이 수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부실한 관리로 수백 년씩 터를 지켜오던 보호수들이 제대로 손도 써 보지 못한 채 고사되거나 일부는 생육이 저해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장기동 내 보호수로 지정된 화화나무는 수령 450년으로 조선 중기 때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둘레만 각각 12m, 4.1m에 달하는 고목으로 2014년 1월 보호수로 지정됐다.

이 보호수는 인근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사 소음과 날림먼지에 장시간 노출됐지만 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고사된 상태다.

고양시 지축동 흥곡사 입구에 위치한 상수리나무도 수령이 250년으로 높기와 둘레만 각각 15m, 3.3m에 이르며 2003년 8월 보호수로 지정됐다.

해당 보호수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나무 뿌리 주변에 쌓아 놓은 돌무더기가 땅속으로 파묻히면서 나무 뿌리의 성장을 방해했으나 시가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고사해 버렸다.

결국 시는 지난 6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벌목,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광주시 조월읍에 위치한 상수리나무는 지난해 9월 11일 보호수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여태껏 고사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보호수가 고사했다는 사실도 주민들이 “나무가 이상하다”는 민원 제기를 해 뒤늦게 인지했다. 이 보호수 역시 현재는 뿌리째 들어난 상태다.

남양주시 와부읍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인근 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가 끝내 말라 죽었다. 시는 2014년 6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뒤 이를 제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원시 권선동 1134의 10에 위치한 은행나무는 수령 420년, 높이 15m, 둘레 3.4m로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됐지만 나무 주변에는 구두, 소주병, 스티로폼, 비닐 등 각종 오물이 버려져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다.

도 산림과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들이 수시로 보호수를 점검하지 않아 뒤늦게 나무 상태가 나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여서 대부분 고사한다”며 “지자체들이 좀 더 정기적으로 보호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성봉 기자 bong@khihoilbo.co.kr



수원시 권선동 1134의 10에 위치한 은행나무는 수령 420년, 높이 15m, 둘레 3.4m로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됐지만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 “학교복지사업 일방적 폐지 반대”

소외계층 교육복지 외면하는 처사 비난  
교내 사회복지사들 연말까지 서명 운동  
도교육청 “담당교사 직접 관리가 적함”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던 ‘학교복지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예고해 논란<본보 8월 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학교 복지사업은 2003년 교육 취약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던 2011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해당 사업을 도입, 현재 지자체 지원 학교

복지사업(올 9월 기준)은 수원(56개교)과 성남(32개교), 안양(8개교), 군포(9개교), 의왕(6개교), 용인(6개교), 안산(13개교) 등지에서 운영 중이며, 고양(7개교·해지)과 파견 24개교(의정부 14개교, 과천 10개교) 등을 포함해 모두 162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에는 총 15만2천여 명의 교육 취약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비정규직 정원 관리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교육복지사 유사 직종(사회복지사·복지상담사 등)의 신규 채용을 금지했다. 또 9월 각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신규로

확대된 16개 교의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해 내년부터 해당 학교에서의 학교복지사업이 중단된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17일부터 도교육청의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될 서명 운동에는 현재까지 1천700여명(라인 1천400여명, 오프라인 300여명)의 비정규직 교육공무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지자체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취약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담당 교사의 직접 관리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모델’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도내 5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연계학교’를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교육 취약 학생 대상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 토막살인 조성호 ‘무기징역’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지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해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등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

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10월 31일(월)

해돋이 06:56 | 달몰림 07:03  
해질름 17:35 | 달출림 18:11

**추위 재촉하는 찬 빗방울**

흐리고 오전에 비 오는 곳 있겠음. 아침 최저기온 3~8℃, 낮 최고기온 9~12℃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확률 (%)		
종류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북서~북	7~12	0.5~1.5	안양	60	20
남해 북서~북	6~9	0.5~1.0	수원	60	20
동해 서~북서	6~12	1.5~3.0	동두천	30	20
			이천	30	20
			양평	30	20
			강원	60	20

제공 Kweather www.630.co.kr

www.kihoilbo.co.kr

## 경인지역 지방자치시대의 역사

# ‘2016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 발간

지난 한 해 경인지역의 자치행정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여 제작한 ‘2016 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이 발간됐습니다.

‘2016 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은 경인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행정·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한 해 동안 소중한 경인지역 역사와 자치행정의 발전상, 변천사를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내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6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 발간**

▶가격 : 200,000원

**기호일보 | 인천광역시 남구 인종로 5 구입문의 (032)761-0007**



# 둘이서... 전자랜드 득점 절반 썼다

켈리+박찬희 44점, 동부 연승 저지



개막전부터 파란을 예고했던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연승을 달리던 원주 동부까지 누르고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자랜드는 3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동부와의 홈경기에서 제임스 켈리(24점)와 박찬희(20점)의 공격력을 앞세워 80-77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하위였던 전자랜드는 현재까지 3경기에서 2승1패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3쿼터까지 팽팽한 경기를 펼치던 양팀은 4쿼터 중반에서 승부가 갈렸다. 전자랜드는 4쿼터 종료 1분 28초 전 박찬희가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어 76-75 점 차로 앞섰고, 55초를 남기고는 정영삼의 득점으로 3점 차로 달아났다.

동부는 원델 맥키네스의 골밑슛으로 1점 차로 따라붙었지만, 전자랜드는 14.2초를 남기고 마지막 공격에서 정호근이 재치 있는 골밑슛으로 2점을 추가하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최윤탁 기자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30일 열린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와 원주 동부 프로미의 경기 4쿼터, 전자랜드 박찬희(오른쪽)가 상대편 파울로 자유투를 얻어낸 뒤 켈리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득점 지원 안 되네 대한항공 첫 패배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로배구 인천 대한항공이 최하위 KB손해보험에게 덜미를 잡혔다. 대한항공은 30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NH농협 V리그' 1라운드 KB손해보험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21-25, 25-22, 17-25, 22-25)으로 시즌 첫 패(3승1패)를 안았다.

이번 시즌 높이를 앞세웠던 대한항공은 이날 오히려 KB손해보험에게 블로킹에서 3-10으로 뒤졌다. 또 가스파리니가 30득점을 올렸으나 다른 공격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1세트부터 흔들렸던 대한항공은 2세트 가스파리니의 서브 득점으로 13-11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선수와 최석기의 불안한 호흡으로 대한항공이 추종한 사이 19-19 동점이 됐다. 그러나 23-20까지 달아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3-4세트에서 다시 블로킹이 흔들렸고, 공격에서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1-3으로 덜미를 잡혔다. 최윤탁 기자

## 인천Utd '강등 탈출권' 1일천하

포항 꺾고 8경기 무패 효과 10위 → 수원 삼성 승리하며 다시 11위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 종료 직전 권완규의 극장골로 8경기 무패(5승3무)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등권 탈출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인천은 지난 2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6' 36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3-2로 제압하며 10승12무14패(승점 42점)를 기록, 10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인천의 10위는 단 하루뿐이었다. 30일 열린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경기에서 수원 삼성이 3-2로 승리하며 인천은 다시 11위로 내려앉았다. 최윤탁 기자 cyt@khihoilbo.co.kr

이기형 인천 감독대행은 "득점 이후 계속 실점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의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극적인 골을 만들어 냈다"며 "선수들이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자신감도 많이 붙은 만큼 앞으로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오늘 승리로 이어진 것 같다"며 선수들을 칭찬했다.

## '수원 FIFA U-20 월드컵' 200일 남았어요 홍보대사 류준열·수원더비 관중 붐 조성

수원시가 'FIFA U-20 월드컵' 개최 2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흥행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시는 3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K리그 클래식 '수원더비'에 맞춰 FIFA U-20 월드컵 D-200일 기념행사인 '월드컵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를 열었다.

경기장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다. 이날 배우 류준열의 FIFA U-20 월드컵 수원 홍보대사 위촉식과 개최 도시 북방로고 및 포스터·홍보영상 발표, 홍보메시지 우수작 시상식도 열렸다. 수원 출신 배우 류준열은 평

소 열렬한 축구팬으로 알려져 FIFA U-20 월드컵과 수원을 홍보했으며, 5인조 걸그룹 베드키즈와 록밴드 트랜스픽션, 가수 홍진영의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수원시는 U-20 월드컵의 열기를 더하기 위해 D-100일, D-30일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FIFA U-20 월드컵'은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 등 6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박종대 기자 pjd@khihoilbo.co.kr

## 씨름판 세 번 휩쓴 남성운

대학장사 역사급 밀어치기 우승 시즌 전국대회 3관왕 달성 포효

남성운(경기대)이 '2016 KBSN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역사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3관왕에 올랐다.

남성운은 지난 28일 수원 광교씨름전용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마지막 날 개인전 역사급(110kg) 결승전에서 임규완(동아대)을 2-1로 힘겹게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남성운은 올 시즌 전국씨름선수권(3월)과 춘천소양강배(8월)에 이어 시즌 3관왕이 됐다. 남성운은 첫 판에서 들배지기로 승리한 뒤 두 번째 판에서는 임규완에게 잡채기를 당했지만 세 번째 판에서 시즌 3관왕답게 밀어치기로 승부에 총지부를 찍었다.

정창욱(경기대)도 개인전 청장급(85kg 이하) 결승에서 전계완(한림대)에 밀어치기를 허용하며 기선을 빼앗겼으나 둘째

판과 셋째 판을 들배지기와 밀어치기로 승리하며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대학 모래판 첫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성운과 정창욱은 전날 단체전 우승을 견인한 데 이어 개인전마저 석권, 나란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용인대끼리 맞붙은 장사급(150kg 이하) 결승전에서는 노정현이 팀 후배 장성우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용장급(90kg 이하) 이한기(용인대)는 김진호(대구대)에 내리 두 판을 내주며 2위를, 소장급(80kg 이하) 박상욱(인하대)도 고석진(한림대)에게 역시 0-2로 져 준우승했다. 경장급(75kg 이하) 정은서, 청장급 부혁진(이상 용인대), 용장급 이재훈(경기대)은 3위에 입성했다.

한편, 전국 최초의 씨름전용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기대는 단체전에서 시즌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개인전 7개 체급 중 2개 체급을 석권했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안창림, 유도 태극마크 달고 국제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발전 73kg급 금메달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안창림(수원시청·사진)이 2016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겸 2017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창림은 지난 29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안준성(용인대)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우승으로 안창림은 내년 3월 예정된 2차 국가대표 선발전 때까지 대표팀에 합류해 국제대회에 나서게 됐다.

남자 66kg급에서는 제일동포 3세 김립환(렛츠런파크)이 준결승에서 리우 올림픽

픽에 나섰던 김원진(양주시청)을 허리후리기 결판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변중웅(용인대)까지 물리반승으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김원진은 이번 대회에서 66kg급으로 한 체급을 올렸지만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남자 60kg급에서는 김찬남(용인대)이 같은 학교 최인혁을 조르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 57kg급 국내 '1인자' 김잔디(양주시청)가 권유정(한국체대)에게 지도승을 내주며 첫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여자 48kg급 강유정과 52kg급 하주희(이상 용인대)는 정상을 차지했다. 심언규 기자

## 피겨 시니어 GP 2차, 최다빈 7위·김나현 8위

한국 피겨 여자싱글 기대주 최다빈(군포 수리고)과 김나현(과천고)이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를 각각 7위와 8위로 마무리했다. 최다빈은 30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거에서 치러진 '스케이팅 캐나다 인터내셔널 2016'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0.76점에 예술점수(PCS) 51.73점을 합쳐 112.49점을 얻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53.29점을 받은 최다빈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165.78점으로 전체 11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최종 7위를 차지했다.

김나현 역시 점프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프리스케이팅에서 104.02점을 따내 쇼트프로그램(60.46점) 점수를 합쳐 총점 164.48점으로 8위에 랭크됐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오늘의 경기

◇31일(월) ▶ 여자 프로농구=신한은행-KEB하나(오후 7시·인천도원체육관) ▶ 테니스=춘천오픈대회(낮 12시·춘천송암체육경기장) 서귀포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주니어선수권대회(낮 12시·서귀포테니스코트)

ggsad.gg.go.kr

###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경기도 종합우승 11연패 달성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종합우승 11연패 달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Gyeonggi-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